

미국 Hawaii대학 소장 准戶口 寫本을 통해 본 18세기 중엽 通津府 거주 昌寧 成氏 일가의 소유 노비 양태*

— 해외 소재 ‘동아시아한국학’ 자료의 조사 및 분석 —

임학성**

〈차 례〉

1. 머리말
2. 자료 소개
3. 노비의 소유 형태
4. 노비의 혼인 및 가족 구성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 논문은 해외에 소재한 한국학 자료를 조사, 소개하고 더 나아가 자료를 考究하여 역사적 이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 하와이대학교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戶籍簿寫』 자료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 자료 책에 수록된 88건의 호적 자료 중 “1765년 通津 成奎海 准戶口”를 택하여 자료에 기재된 소유 노비 345명의 양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된 내용 및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에는 소유 노비의 使役 형태를 ‘牽奴婢秩’·‘外方奴婢秩’·‘逃亡奴婢秩’로 구별하여 기재하였는데, 전체 노비 가운데 슬노비가 약 25%, 외방노비가 약 65%, 도망노비가 약 10%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였다. 성별로는 노가 약 52%, 비가 약 48%로 나타나 소유 노비의 성별 분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1047).

**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둘째, 소유 노비 중 가장 많았던 외방노비는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충청도·전라도에 각 3개 고을, 경상도·황해도에 각 2개 고을, 강원도·평안도에 각 1개 고을 등, 총 15개 지역에 분포하였다. 그 가운데 강원도 江陵에만 외방노비의 약 43%가 集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通津에 거주한 上典 蒼寧 성씨 일가가 강릉과 매우 특별한 연고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셋째, 전체 소유 노비의 평균 연령은 약 45세였으며, 성별로는 노가 약 43세, 비가 약 47세로 나타났다. 사역 형태별 평균 연령은 솔노비가 약 31세(노 29세, 비 33세), 외방노비가 약 51세(노 49세, 비 54세), 도망노비가 약 48세(노 42세, 비 60세)였다. 따라서 노와 비교해 볼 때 비가 다소 고령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넷째, 연령별 분포는 최연소 3세(솔노)에서 최연로 92세(외방노와 도망노)였으며, 연령 대로는 ① 10대(13.3%), ② 20대(11.3%), ③ 50대(10.7%), ④ 30대(10.1%), ⑤ 40대(9.5%), ⑥ 60(8.6%), ⑦ 70대(8.3%), ⑧ 80대(5.3%), ⑨ 10세 미만(1.8%), ⑩ 90대(1.5%) 등의 순서를 보였다.

다섯째, 연령을 모른다고(‘不知’) 기재한 노비 총 66명이었는데 솔노비는 3명의 불과하였고, 나머지 63명(약 96%)은 모두 외방노비였다. 아무래도 외방노비의 경우 상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연령 파악이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겠다. 반면 상전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던 도망노비의 경우 모두 연령을 기재하고 있어 소유 재산인 노비에 대한 蒼寧 성씨 일가의 강한 집착을 엿볼 수 있었다.

여섯째, 혼인 유형은 노비 간의 혼인이 약 70%, 良賤 간의 혼인이 약 30%로 나타났다. 노비 간의 혼인에서는 주인 成奎海의 소유였던 ‘班奴’와 ‘班婢’ 간의 혼인이 약 23%, 成奎海 소유 노비(班奴·班婢)와 타인 소유의 노비(私奴·私婢)와의 혼인이 약 46%로 나타났다. 양친 간의 혼인에서는 반노와 양녀 간의 혼인이 약 10%, 반비와 양인 간의 혼인이 약 21%로 나타났다.

끝으로, 전체 소유 노비 중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약 86% 정도로 나타나 조선 후기 양반가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노비의 경우 대다수가 가족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솔노비와 외방노비 간에는 서로 가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18세기 성규해 일가의 경우 소유 노비를 사역 형태별로 단절하여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살필 수 있었다.

[주제어] 하와이대학, 朝鮮總督府, 准戶口, 通津, 昌寧 成氏, 소유 奴婢

1. 머리말

이 연구는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동아시아한국학’¹⁾ 자료를 조사하여 소

1) ‘동아시아한국학’은 한국학 연구에 뿌리 깊이 각인된 민족주의 이념과 서구중심적 방법론을 극복하고자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창안한 연구방법론이자 개념을 말한다. 그 연구방법의 하나로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학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함으로써 해외 각 지역의 한국학과 소통하려는

개 및 분석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시대의 사회경제 양상을 실증하는 데 있어 최적의 자료 가운데 하나인 戶籍 관련 자료를 조사·소개하고, 그 자료가 연구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하려는 것이다.

필자가 이번에 조사·소개, 분석하려는 자료는 조선 후기에 작성된 호적 관련 古文書인 准戶口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주민등록 등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자료이다. 조선시대에는 3년(干支가 子, 卯, 午, 酉로 끝나는 해)마다 각 고을별로 戶口調査를 하여 그 결과물로 戶籍大帳(일종의 ‘戶口簿’)을 작성하였는데, 戶首²⁾의 신청에 따라 관아에서 새로 작성된 호적대장에 등재된 해당 호의 기재 내용을 謄寫하여 준호구를 발급하였다.³⁾

따라서 준호구는 어느 한 家戶의 신분 증명 및 賦役 대상 판별은 물론 재산(준호구에 기재된 소유 노비)을 증빙하는 공증 문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에, 평민층 이하의 하층민보다는 주로 신분 및 소유 노비를 증빙하기 위해 양반신분층에서 발급받아 보관·세전하였다. 오늘날 전하고 있는 준호구의 대부분이 양반신분층의 것이라는 점은 바로 그런 연유에서이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준호구를 분석한 연구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데,⁴⁾ 이는 준호구가 조선시대에 살았던 어느 한 인물(양반신분층) 및 가문의 신분 판별과 그 변동, 通婚 및 가족 구성,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노비 양태 등을 실증적으로 考究하는데 최적의 자료이기 때문이었다.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2) 1896년 9월 1일 〈戶口調査規則〉의 반포로 ‘新式’ 호적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 호구 신고 시 家戶를 대표하여 자를 ‘戶主’라고 공식적으로 칭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호적 관련 자료에서 그러한 자를 ‘戶首’로 칭하는 용례가 적잖이 확인된다. 이에 필자는 1896년 9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호수’와 ‘호주’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 3) 조선시대 준호구의 작성 과정 및 자료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崔承熙, 『戶口單子·准戶口에 대하여』, 『奎章閣』 7, 서울대 도서관, 1983; 문현주, 『조선후기 戶口單子와 准戶口の 작성과정 연구-慶州府의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38, 한국고문서학회, 2011.
- 4) 西川孝雄, 『17·8世紀安東·星州兩班『戶籍』の一檢討-率居及び外居奴婢の分析-』, 『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報告』 1, 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會, 1972. 한편 호구조사 시 戶首가 자기 가호 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관아에 제출한 戶口單子를 분석한 연구는 李海濬, 『朝鮮後期 湖西地方 한 兩班家의 奴婢所有實態-公州中湖·慶州李家所傳 戶口單子分析-』, 『湖西史學』 8·9합, 호서사학회, 1980이 처음으로 확인된다.

이제, 해외 연구 기관(미국 하와이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시대~근대 호적 관련 자료를 조사·소개하고, 그 중 조선 후기 경기도 通津 관아에서 어느 한 양반 가호에게 발급한 준호구 자료 1점을 분석하려 한다. 특히 이 자료는 다른 준호구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많은 소유 노비를 기재하고 있어, 조선 후기 양반 가문의 재산 상태 및 관리, 사노비의 존재 양태를 이해하는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자료 소개

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미국 하와이대학(University of Hawaii / Honolulu)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戶籍簿寫』(소장 번호 : East Asia DS 901.P5 V.317)에 수록되어 있는 戶籍 자료들 중 하나이다.⁵⁾ 『戶籍簿寫』(뒤의 <사진 1> 참조)는 조선 후기~일제강점 초기의 다양한 한국 호적 자료들을 편철한 책으로 民籍簿 자료는 원자료를 그대로 편철하였고, 戶口單子나 准戶口와 같은 조선 후기에 작성된 호적 자료들은 원문을 朝鮮總督府 전용 縱行 총 13줄 罫紙에 필사하여 옮겨 적었다.⁶⁾

따라서 『戶籍簿寫』는 조선총독부에서 필요에 의해 조선의 호적 자료들을 선별하여 필사(또는 일부 편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목적은 호적의 조사·작성 기준 및 자료에 기재된 내용(호구 편제, 혼인, 가족 구성, 노비 소유 양태 등)을 통해 조선의 관습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국내 도서관 등의 연

5) 『戶籍簿寫』 자료는 조선대학교 사학과의 이정선 교수가 필자에게 제공한 사진 파일을 활용하였다.

6)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센터에서 간행한 자료 목록집(*Japanese Sources on Korea in Hawaii*, 1980)에 따르면 이 자료는 Toshiyuki Kajiyama[가지야마 도시유키, 梶山季之, 1929~1975]가 1976년에 하와이대학 도서관에 기증 자료를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가지야마 도시유키는 서울에서 태어나 일제의 패망으로 일본으로 갔다고 한다(가지야마 도시유키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원희,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와 조선』, 『日本語文學』 38, 일본어문학회, 2007 참조). 그런데 그가 조선총독부에서 필사한 『戶籍簿寫』 자료를 사망 때까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었던 까닭은 그의 부친이 조선총독부 관리였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본다. 패망과 함께 그의 부친이 조선총독부에서 소장했던 조선(한국)학 자료의 상당수를 일본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다가 아들에게 승계하였던 것 같다.

구기관에 『戶籍簿寫』와 동일하게 조선총독부 패지에 조선 후기 호적 자료들을 선별, 필사하여 묶은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것도 같은 연유이다.⁷⁾

『戶籍簿寫』에는 총 23질 88건의 호적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민적부 원본을 그대로 편철한 것이 5질 43건이고 나머지(18질 45건)는 모두 필사한 것이다. 한편 민적부를 제외한 호적 자료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호구단자(호적초단 포함)가 14건, 준호구가 25건, 그리고 호적중초 내용을 발췌한 것이 6건 등이다(〈표 1〉 참조).

〈표 1〉 하와이대학 소장 『戶籍簿寫』에 수록된 호적 자료 현황

No.	지역		자료 종류 / 형태	분량 (건)	비고
	道	郡縣			
1	경상남도	晉州牧	戶口單子 / 필사	7	晉州牧 거주 坡平 尹氏 일가의 1695~1777년 호적 자료
			准戶口 / 필사	8	
2	漢城府		戶口單子 / 필사	1	漢城府 거주 全義 李氏 일가의 1681년 호구단자
3	漢城府		准戶口 / 필사	1	漢城府 거주 全義 李氏 일가의 1687년 준호구
4	전라북도	南原郡	民籍簿 / 원본	14	南原郡 長興面 · 萬德面 거주 주민(14개 戶)의 민적부
5	충청남도	扶餘郡	民籍簿 / 원본	9	扶餘郡 蒙道面 거주 주민(9개 戶)의 민적부
6	함경남도	咸興府	准戶口 / 필사	6	咸興府 거주 永川 李氏 일가의 1774~1834년 준호구
7	평안북도	龍川郡	戶籍草單 / 필사	3	龍川郡 거주 주민(14개 戶)의 1905년 호적초단 발췌
			戶籍中草 / 필사	1	龍川郡 거주 南陽 洪氏 일가의 ‘乙酉式年’ 호적중초 발췌
8	평안북도	義州府	戶籍中草 / 필사	1	義州府 玉尙面 거주 주민(6개 戶)의 ‘庚子式年’ 호적중초 발췌
				1	義州府 古寧朔面 거주 주민(10개 戶)의 ‘癸卯式年’ 호적중초 발췌
				1	義州府 威化面 거주 주민(14개 戶)의 ‘辛卯式年’ 호적중초 발췌
				1	義州府 古寧朔面 거주 주민(3개 戶)의 ‘己酉式年’ 호적중초 발췌
				1	義州府 古寧朔面 거주 주민(4개 戶)의 ‘癸卯式年’ 호적중초 발췌
9	경상북도	義城郡	准戶口 / 필사	1	義城郡 거주 永川 李氏 일가의 1666년 준호구
10	경상남도	晉州牧	准戶口 / 필사	1	晉州牧 거주 晉州 河氏 일가의 1702년 준호구

7) 임학성, 『1910년 3월 大韓帝國 度支部에서 活字로 간행한 “1663년 漢城府 北部戶籍”』, 『古文書研究』 58, 2021, 126쪽.

11	평안남도	平壤府	民籍簿 / 원본	11	平壤府 隆興面·外川面 거주 주민(11개 戶)의 민적부
12	평안남도	鎭南浦	民籍簿 / 원본	5	鎭南浦府 元塘面 거주 주민(5개 戶)의 민적부
13	평안북도	義州府	民籍簿 / 원본	4	義州府 光城面 거주 주민(4개 戶)의 민적부
14	경기도	通津府	准戶口 / 필사	1	通津府 거주 昌寧 成氏 일가의 1765년 준호구
15	평안남도	龍岡縣	准戶口 / 필사	1	龍岡縣 거주 濟州 高氏 일가의 1879년 준호구
16	평안남도	咸從府	准戶口 / 필사	2	咸從府 거주 三嘉 金氏 일가의 1870년과 1885년 준호구
17	평안남도	龍岡縣	准戶口 / 필사	1	龍岡縣 거주 晉州 金氏 일가의 1858년 준호구
18	(황해도)	(新溪郡)	戶口單子 / 필사	1	西里坊 內巨里(황해도 신계군 추정) 거주 沃川 全氏 일가의 '戊子式年' 호구단자
19	평안남도	三和府	准戶口 / 필사	1	三和府 거주 全州 趙氏 일가의 1810년 준호구
20	평안남도	三和府	准戶口 / 필사	1	三和府 거주 白川 趙氏 일가의 1846년 준호구
21	(황해도)	(新溪郡)	戶口單子 / 필사	1	元塘坊 楓井里(황해도 신계군 추정) 거주 延安 車氏 일가의 '戊子式年' 호구단자
22	평안남도	龍岡縣	准戶口 / 필사	1	龍岡縣 거주 蔚珍 林氏 일가의 1804년 준호구
23	?	?	戶口單子 / 필사	1	거주지 미상 楊州 金氏 일가의 '甲午式年' 호구단자

자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성부 2건, 경기도 1건, 충청남도 9건, 전라북도 14건, 경상북도 1건, 경상남도 16건, 황해도(추정) 2건, 평안남도 23건, 평안북도 13건, 함경남도 6건, 미상 1건 등이다. 국내 연구기관에 소장된 호적 자료가 거의 남한 지역의 것에 편중되어 있는 점과 비교하면 『戶籍簿寫』는 북한 지역의 것이 절반 이상 수록되어 있다는 자료적 특징을 보인다. 한편, 수록된 원본 자료의 생산 시기는 17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반에 해당한다.

본 연구를 위해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자료는 No.14 通津府의 昌寧 成氏 호적이다. 이 자료는 '乾隆三十年', 즉 1765년(英祖 41·乙酉)에 경기도 通津府 관아에서 관내 甫口串面 東幕里 제4동 제5호에 거주하는 戶首 成奎海(17세, 1749년생)에게 발급한 准戶口 한 건이다.⁸⁾ 필사된 자료를 활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일부 오기가 발견된 부분은 각주로 교정하였음).

8) 이하, 이 자료를 "1765년 通津 成奎海 准戶口"라 칭하기로 한다. 이 자료는 『戶籍簿寫』의 총 23면에 걸쳐 필사, 편철되어 있다.

乾隆三十年 月 日通津府

新戶 考乙酉成籍戶口帳內甫口串面東幕里第四統第五戶幼學成奎海年十七己巳生本昌寧父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有 烈生父幼學 錫烈祖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 檄曾祖 贈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 重勳外祖通德郎李琇籍全州妻張氏年十九丁卯生籍仁同父通訓大夫行司諫院獻納知製敎 淀祖學生 泰亨曾祖 贈通德郎司憲府持平成均進士 世翼外祖 贈通宣⁹⁾郎司憲府持平李道命籍廣州

率奴婢秩奴萬春年五十三父班奴元伊母班婢次眞婢本得年三十一父母上同婢甘節年五十二父班奴石同母班婢命今奴眞萬年五十九父良人莫俊母班婢古邑丹婢三月年五十父班奴順立母班婢業丹婢世分年五十七父良人名不知母班婢三月婢秀礼故婢秀丹年二十四婢秀梅年十九父良人金永萬母班婢世分奴從萬年五十二父私奴介山母班婢久礼奴順萬故婢愛今年七十八父班奴次仁母班婢愛礼婢丁今年六十六父班奴順日母班婢時礼奴三金年五十七父班奴順男母班婢恣礼奴岳發年六十父班奴順立母良女名不知奴守康年五十父私奴萬童母班婢愛今婢從節年四十七婢守節年三十七父母上同奴士巾年六十七父班奴莫光母私婢連業婢士今年五十九父母上同婢墨世年三十父良人李丁益母班婢丁今奴哲澄年三十九父班奴巨卜母班婢礼丹婢業烈年三十八婢業切年三十五父母上同同¹⁰⁾婢哲今年二十六父班奴雀金母班婢甘切婢分今年二十三奴東令年十九父母上同婢貴梅年三十四父班奴一卜母班婢孝德婢二每年三十二奴丕乱年十九父母上同奴甘孫年二十九父私[奴]¹¹⁾奉世母班婢三月奴卜男年十八奴卜春年十四父母上同婢自叱伊年二十六父私奴德奉母班婢士今婢從節年四十五父贖奴丁發母班婢連業奴再萬年三十七奴再老味年三十父母上同奴叟太年十三父班奴位萬母班婢應宗婢孝德年五十八父私奴永石母班婢次丹奴自乙忠年五十二父母上同婢道娘年三

9) '홀'의 오기?

10) '同' 중복 오기?

11) []는 글자가 누락된 것을 표시한 것인데, 추정이 가능한 경우 해당 글자를 기재하였고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기하였음.

十四父良人姜丁達母班婢永列婢懿春年三十父[?][?]元業母班婢永列奴
 懿男年二十八父母上同婢士丹年三十五父名不知母班婢一礼奴贊奉年
 丙辰生父私奴時同母班婢三列婢永每年丙戌生母班婢順香父名不知同
 婢一所生婢惡今年己酉生三所生奴惡男年丙寅父母上同奴次男年乙丑
 父班奴芑夢母[?]婢積先婢有德年癸巳父班奴有信母班婢丁德同婢一所
 生婢詘去非年壬戌二所生婢八月年辛未父良人海江母班婢有德婢莫今
 年甲寅母班婢奉列父名不知婢世月年庚戌生父名不知母班婢江生婢者
 下連伊年甲子父[?][?]姜分也之母班婢懿德婢点丹年庚戌母班婢玉上父
 名不知婢雪云礼年庚子父良人朴俊上母班婢者斤德同婢一所生奴漢命
 年癸亥生父班奴守康母班婢雪云礼二所生婢汗妹年乙丑三所生奴汗上
 年戊辰四所生奴汗云故五所生婢汗今年庚午六所生奴汗州年辛未七所
 生奴下芑伊年癸未生父母上同婢奉切年庚午父班奴夫貴母班婢点丹婢
 鉄德年甲子父良人全甘孫母班婢愛礼婢鋤云年丙寅父班奴首發母[?]
 [婢]惡德奴太卜年辛未太辰年甲戌父母上同奴德俊年十九父班奴永
 龍母班婢玉窠奴卜老味年十六父私奴虎狼母班婢水節奴武述年十八父
 私奴孝才母班婢從節奴春愛年十八父班奴哲澄母班婢卜礼婢春今年十
 二父母上同婢甘丁年八父母上同婢女引年十八父班奴六孫母班婢千愛
 婢卜愛年九父母上同婢從今年九父班奴從萬母班婢士丹婢從丹年六父
 母上同奴夫月年十七父私奴阿只老味母班婢業切婢阿只年十五父砲手
 崔太崇母班婢懿節奴聖卜年七父私奴聖巾母班婢莫今婢業德年不知奴
 卜世年不知奴阿只年不知父母上同外方奴婢秩松都後西江奴卜己年三
 十九父班奴太老味母班婢水辰婢心上年二十九婢雙礼年二十二父母上
 同江華奴守鉄年己酉父班奴時行母班婢戊辰奴恠石年甲寅父母上同奴
 順才年三十二父良人朴萬上母班婢甘丁奴於仁老味年十三父良人金甲
 云母班婢奉礼漣川奴太位年五十三父私奴戊全母班婢分德婢太礼年三
 十八婢太今年三十五父母上同洪州婢俊切年八十父班奴癸云婢甘同年
 六十八婢礼切年五十七父班奴癸云母良女名不知奴戊才年六十二父班
 奴癸奉母良女名不知婢同礼年七十六父私奴有命母班婢辛今婢夢生年

七十三父班奴得成母班婢貴禮奴上立年六十四父班奴癸男母良女瓮知婢尙今年五十五父母上同奴芑先年六十五父[?][奴]忠善母班婢於香婢雀德年五十三父班奴芑先母良女玉眞奴長守年六十六父[?][奴]己先母班婢五禮奴長海年六十三父母上同奴貴金婢莫春等年不知父名不知母班婢欣今婢忝禮年六十五父良人金孝一母班婢莫今婢日上年七十七父[?][奴]全山母班婢業伊婢無良年不知父母上同婢次禮年不知父名不知母班婢先業保寧奴奉伊年四十五父私奴仁菴母班婢次丹奴忝乃年不知父名不知母班婢莫今奴奇特年不知父名不知母班婢仁業奴己男年不知父母上同婢於禮年七十父名不知母班婢介之婢點愛年四十二父名不知母班婢無良奴謀金年二十五父私奴月奉母班婢於禮婢謀今年二十二奴謀芑伊年十五父母上同奴惡同年二十一父名不知母班婢點愛奴惡山年十九奴岳共年十九奴惡卜年十七婢 年十三婢 年十二父母上同奴石卜年二十父班奴盛才母班婢正尙奴石才年十八奴石卜年十五婢石丹年十五婢名不知年不知父母上同藍浦奴馬庫金年五十父私奴五月金母班婢命丹奴忝金年四十二父母上同婢五十丹年二十八奴點芑年二十一婢五十禮年十八婢名不知年十六婢名不知年十五父班奴奉伊母班婢命辰高山婢齡德年九十一父班奴險金母班婢芑禮奴名不知年七十五父[良人?]禹再昌母班婢苧非婢五月年七十三父母上同婢永春年八十六父班奴金巨卜母班婢守理今奴山伊年八十三奴貴今年七十六奴貴上年七十二奴貴延年七十父母上同咸平婢命今年不知父班奴芑男母良女名不知婢玉尙年不知父[良人?]金卜立母班婢命今奴四明年不知父母上同靈光奴孫奉年八十三父班奴訓立母良女名不知婢風辰年不知父班奴鳳學母良女名不知奴共春年不知父母上同奴順嶽年七十三父[良人?]朴位萬母班婢尙婢順¹²⁾央今年六十八父母上同婢適介年七十九[………]¹³⁾婢點上年七十六父母上同奴順先年八十三父私奴姜率立母班婢哲今婢順尙年六十七父母上同婢自望介年八十三父名不知母班婢哲辰婢岑化年八

12) ‘婢順’은 ‘順婢’의 오키로 보임.

13) 필사하는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기재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보임.

十一婢岑丹年七十九奴自元年七十五父母上同婢知也今年不知父[?][?] 丁得立母[班婢]守里今奴別金年不知父母上同婢風里介年八十六父[良人?] 丁破會母班婢風月奴窠[?]年八十二婢窠望介年七十八父母上同奴官金年不知父[?][?]官奉母班婢眞伊婢官德年不知奴者斤介年不知父母上同婢一向介年七十四父名不知母班婢雪云介婢薰丹年六十六父[?][?] 金薰母班婢風星介奴薰石年六十九父母上同婢麻音才年六十四父名不知母班婢官德婢德夕介年六十六父名不知母班婢七夕非奴於屯年六十四父母上同蔚山奴造莫孫年不知父[良人?]鄭奉还母班婢今月奴後邑種年八十四父[良人?]鄭日上母班婢金眞婢者斤眞年七十三奴厚年六十二父母上同奴者斤老味年不知父[?][?]漢生母班婢自下作奴命擔年不知慶州移去婢三月年不知婢九月年不知父母上同奴二立年不知父[?][?]應卜母班婢於仁助屎婢二今年不知父母上同奴能貴年不知父班奴官同母良女玉今奴者斤老味年九十一奴今男年七十七婢分今年不知父[良人?] 李凡尙婢分德年不知父禁衛軍金康婢連眞年不知父母名上同[……]14) 父兵營都訓導崔石奴月太年五十一父牧子金日承母班婢二礼婢月娘年四十四父母上同奴礼芑年不知父[班奴?]能貴[母]15) 名不知奴元上年不知父名不知母班婢分今婢莫連年不知婢者下延年不知父母上同奴陳順間年不知父名不知母班婢分德延安婢二丹年九十父[良人?]洪二得母班婢礼奴古邑孫年七十八婢於丹年六十父母上同白川奴丙云故[……]16) 旭故江原道奴婢秩江陵婢二丁年八十二父班奴二命母良女名不知婢二礼年七十五婢二列年不知奴元年不知婢元列年癸未父母上同婢永丹年六十三父季民母班婢二丁奴自萬年五十四奴留萬年四十九婢七今年四十一父母上同奴士芑年二十八父班奴留萬母班婢十分婢就分年四十九父驛吏全命學母班婢二列奴就萬年四十七奴就芑年四十二奴星芑年三十四婢名不知年二十八父母上同奴世大年四十父良人崔次孫

14) 필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임.

15) ‘母’字가 누락된 것으로 보임.

16) ‘旭’字 앞에 몇 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임.

母班婢二礼婢者斤年不知奴秃棠年不知婢驗德年不知父母上同婢齡德年二十六父班奴元伊母班婢今礼奴莫男年十九父班奴元業母班婢海眞奴允己年六十五父私奴李命立母班婢次貞奴海上年五十三奴二尙年不知奴尙奉年四十五父母上同奴守光年十八父班奴尙奉母班婢己眞婢壬辰年不知父班奴庚申母良女点礼婢武本年五十六婢戊丹年五十三父母上同奴士元年七十五父驛吏名不知母班婢棠香奴永述年六十一父良人已得母班婢棠香婢命丹年五十三父母上同婢三月年八十一父班奴玆山母良女名不知奴有萬年七十六奴名不知年不知婢三分年不知父母上同婢己分年七十七父私奴尙承母班婢玆介奴太明年九十二父刑曹奴高承奉母班婢玆之奴太京年八十五婢杰丹年八十三奴莫孫年七十五奴杰奉年七十一婢太辰年不知父母上同婢世今年不知父名不知母班婢三月婢世辰眞年五十一奴光得年四十九婢五十切年四十父母上同奴業山年五十一父私奴名不知母班婢己分奴牛郎年四十七婢名不知年四十三父母上同奴有宗年五十九父名不知母班婢杰丹奴九立年五十三父萬奉母班婢杰丹婢九礼年五十一婢丁分年不知婢丁丹年四十五奴五十男年四十父母上同婢桂礼年三十四父名不知母班婢太今奴斜筒年二十九婢今年不知婢丁丹年不知父母上同婢三分年四十六父班奴莫先母班婢今眞奴古音注年三十六奴貴玆年二十七父母上同奴玆先年三十七父名不知母班婢永丹[……]17)年不知婢名不知年不知奴名不知年不知[奴?]馬郎年二十七父母上同奴由元年四十三父班奴永述母班婢介也知奴德奉年四十奴德童年不知婢名年不知父母上同奴牛郎年不知父班奴有萬母班婢戊辰奴日屎年四十一奴日太年三十六婢名不知年二十一奴年名不知父母上同奴世江年不知父班奴太京母良女名不知奴二江年不知奴有尙年不知婢世丁年不知婢世辰年不知奴有山年不知父母上同婢允切年不知父班奴杰奉母良女名不知婢允辰年不知父母上同奴險愧年十六父名不知母班婢夫礼奴險奉年十四父母上同婢聖今年三十九父[良人?]金

17) '年'字 앞에 몇 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임.

玉山母班婢翠分奴太卜年二十二婢太月年十七父母上同奴童卜年十四父名不知母班婢七今奴丁金年二十二父班奴尹己母班婢同眞婢今年年不知父名不知母班婢太今婢乙良年二十五父名不知母班婢莫丹婢乙分年二十三父母上同婢今年年十三父名不知母班婢丁丹童崗¹⁸⁾奴眞男年七十二父名不知母班婢仁香婢辰列年六十六奴老郎年六十父母上同奴者斤德年四十四父[良人?]李宗石母班婢眞礼逃亡奴婢秩奴於亥年五十三父良人日同母班婢桂礼戊午逃婢香伊年二十一父私奴卜立母班婢命今戊辰逃婢二礼年八十八父私奴小日母班婢莫今己卯逃奴崙山故乙酉逃婢者玉年八十二父私奴小日母班婢哲辰丙申逃婢者斤礼年八十五父名不知母班婢命礼辛卯逃婢順丁年六十五父名不知母班婢生伊丙申逃奴者斤金年八十一父良人官奉母班婢眞伊己亥逃婢永月年五十八父班奴桂立母名不知奴順大年三十四父私奴之巾母班婢永月奴三男年三十一奴卜老味年二十四父母上同乙丑并逃婢斗去非年七十六父砲手天生母班婢今礼戊子逃奴貴男年九十二父班奴己尙母班婢士礼奴於卜年六十二父班奴貴男母良女分伊婢紉德年六十三奴二卜年五十八奴三卜年五十四奴士卜年五十一奴五卜年四十八奴六卜年四十五奴貴金年四十三父母上同甲辰并逃婢箕仁礼年四十九父名不知母班婢於丹奴順萬年五十六父私奴介山母班婢九礼奴墨去年十七父班奴順萬母班婢棋隣礼奴織伊年十五父母上同丁丑逃亡奴天金年五十三父私奴五月金母班婢命丹丙午逃[奴?]從亥年四十一父班奴順一母班婢時礼奴得天年十八父班奴從亥母班婢卜窠奴得萬年十四父母上同奴得希年二十四父班奴位亥母班婢奉礼丙子逃亡婢者斤列年五十七父班奴自明母良女名不知奴雨芳年四十八父母上同奴成大年三十一父良人金惡發母班婢者斤列奴星贊年二十一父母上同婢永每年三十七父良人朴萬尙母班婢甘丁婢九月年甲辰父私奴馬唐母班婢玉生奴德三年二十九父班奴永童母班婢玉眞等逃亡壬午戶口准給者

18) '崗'은 '岡'의 오기.

行府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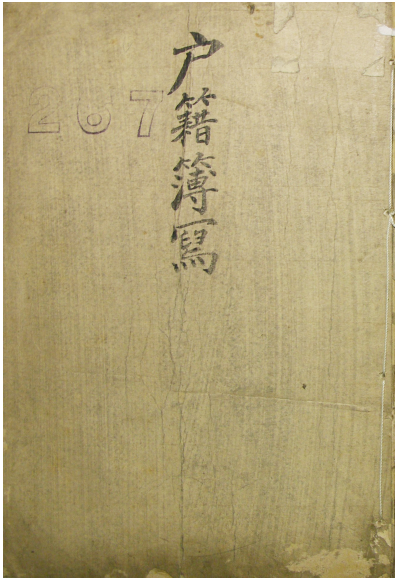
監官金〔押〕

別有司林得喜〔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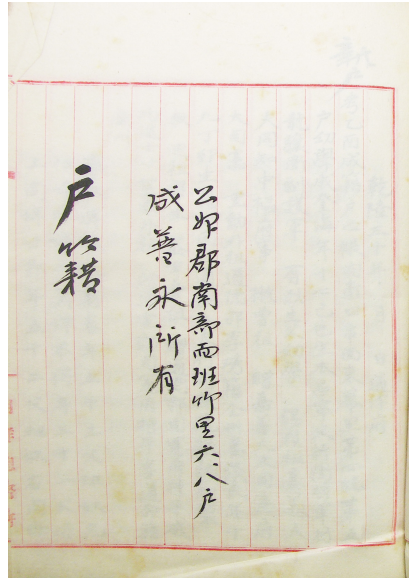
風憲柳〔押〕

里正崔〔押〕

“1765년 通津 成奎海 准戶口” 자료의 內題에는 자료의 소유자를 기재하였는데(〈사진 2〉 참조), 公州郡 南部面 班竹里 六,八戶(제6통 제8호)에 거주하는 成普永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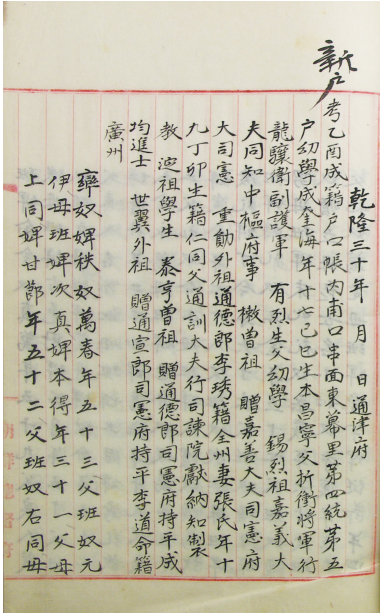


〈사진 1〉 『戶籍簿寫』 안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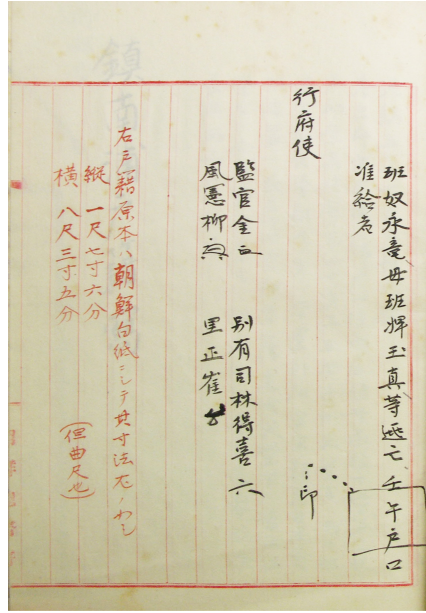


〈사진 2〉 “1765년 通津 成奎海 准戶口” 內題

19) 公州郡 南部面 班竹里는 현 公州市 中學洞에 속한 법정동 班竹洞이다. 한편 成普永에 대해서는 1920~30년대 공주 지역에서 유지로 활동한 인물이었다는 정도가 확인되는데, 이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던 집에서 준호구에 戶首로 등재된 成奎海의 직계 후손이었다고 추정된다.



〈사진 3〉 “1765년 通津 成奎海 准戶口” 본문 첫 면



〈사진 4〉 “1765년 通津 成奎海 准戶口” 끝 면

한편, 자료 본문의 첫 면에는 패지 상단에 ‘新戶’로 기재하였다(〈사진 3〉 참조). 즉, 3년 전 호적에서는 없던 戶가 이번(1765년)에 새로 登載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成奎海 가호는 1762년~1765년 사이에 他邑에서 거주하다가 통진으로 전입하였든지, 아니면 다른 가호(예를 들어 父)에서 동거하다가 독립하여 가호를 이루었던 것이 되겠는데, 戶首 성규해의 연령이 17세였던 점을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짙다 하겠다. 더군다나 이 준호구 자료의 말미에 ‘壬午戶口准給者’(〈사진 4〉 참조), 즉 3년 전인 壬午年(1762)에 작성한 호적대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급한다고 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3년 전에도 성규해는 통진부에서 작성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끝 면에는 이 준호구 자료의 원본을 필사한 후 자료 원본의 상태를 朱書로 부기하였는데(〈사진 4〉 참조), 재질은 朝鮮 白紙이며 크기는 曲尺, 즉 나무나 쇠로 만든 ‘ㄱ’자 모양으로 굽은 자로 縱(세로) 1尺7寸6分, 橫(가

로) 8尺3寸5分이라 하였다. 이를 환산하면(기준 : 곡척 1척은 30.363cm, 10分=1寸, 10寸=1尺), 자료의 크기는 세로 53.4cm, 가로 253.5cm가 된다. 후술하겠지만, 이 자료에 기재된 소유 노비가 무려 345명에 달하는 만큼 자료의 크기가 대형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이상, “1765년 通津 成奎海 准戶口” 자료는 그 원본의 크기에서도 말해주듯, 조선 후기 준호구 자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소유 노비를 기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더군다나 이 자료의 원본 소재를 조사해 본 결과 아직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록 원본을 필사한 자료이기는 하나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3. 노비의 소유 형태

앞에서 “1765년 通津 成奎海 准戶口” 자료에는 여타 호적 자료에서 보기 드물게 345명이라는 수많은 소유 노비를 기재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호적 작성 당시 호수 成奎海는 17세였고 職役은 仕宦하지 않은 양반 사족을 일컫는 ‘幼學’이었다. 비록 양반 신분이기도 하나 벼슬도 하지 못한 17세의 미성년 호수가 무려 350명에 가까운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던 배경은 선조로부터의 세전이 결정적 이유였다고 본다. 준호구 자료에서 확인되는 성규해 四祖의 직역과 이름은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有烈(父)·幼學 錫烈(生父), 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 檄(祖), 贈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 重勳(曾祖), 그리고 외조는 通德郎 李琇(본관 全州)였다.²⁰⁾ 4조 가운데 父 有烈은 1698년생으로 1721년 증광시에서 생원 1등 4위로 합격하였으며, 1726년 江華別試에서 장원급제(甲科 1위)하였음이 확인된다.²¹⁾ 따라서 父의 과거 급제 경력과 준호구 자료에 기재된 사조의 직역 등을 통해 볼 때 성규해 집안은 양

20) 生父 錫烈은 직역이 ‘幼學’으로 기재되어 1765년 준호구 발급 당시 생존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有烈이 後嗣 없이 사망하면서 성규해가 入繼한 것으로 추정된다.

21)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한국학종합정보서비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지도〉 1895년 제작 “5만분의 1지도” 상의
 통진군 보구곶면 동막리 위치

반사족으로서의 家格은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1765년 당시 성규해가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준호구 자료 通津府 浦口串面 東幕里가 거주지였다. 이 지역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여 강화도와 통진 사이의 鹽河로 빠져 나가는 곳에 위치한 김포반도 서북단의

河口마을이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停戰協定〉의 체결 이후 ‘漢江河水域’²²⁾이 설정되기까지 선박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곳이기도 하다. 특히 〈지도〉²³⁾에서 보듯이 동막리 우측에 위치한 康寧浦는 조선시대 漕運船 및 商船의 계류가 잦았던 주요 浦口로 기능하였다.²⁴⁾

한편, 유창호의 연구에 따르면 1901년 통진군 보구곶면 호적에 등재된 총 6개 리의 218戶 戶主 가운데 昌寧 成氏가 모두 15戶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東幕里에 13호가 거주하여 리 전체(24호)의 절반 이상(54.2%)을 창녕 성씨가호가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²⁵⁾ 따라서 성규해가 살았던 동막리는 18세기 중엽에도 창녕 성씨의 同姓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²⁶⁾

22) ‘한강하구수역’은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물길 67km에 달하는 지역으로 남측이 비무장지대처럼 통제하면서 더 이상 선박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공간이 되었다.
 23) 유창호, 『20세기 초 경기도 통진군 ‘보구곶’마을 사람들의 생활 양태-1901년(光武 5) 通津郡 浦口串面 戶籍자료 분석 사례-』, 『역사민속학』 40,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48쪽의 지도를 재인용하였다.
 24) 유창호, 위의 논문; 전중환, 『근대이행기 조강 연안의 포구 성쇠와 포구 네트워크』, 『대한지리학회지』 52-2, 대한지리학회, 2017. 한편 유창호 연구에 따르면 1901년 호적에 등재된 전체 218명의 호주 직업 분포에서 商民과 船民이 약 51%(상민 13.3%, 선민 37.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강녕포가 있던 康寧里의 경우 전체 상민·선민의 약 86%(상민 75.9%, 선민 90.2%)가 집중되어 있었음을 본다(위의 논문, 57쪽). 20세기 초에도 통진의 보구곶/강녕포 지역은 상품유통 포구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엿보게 해준다.
 25) 유창호, 위의 논문, 53쪽. 나머지 2호는 동막리 남쪽에 위치한 浦串里(전체 31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26) 1901년 호적의 분석 결과 보구곶면의 호주들은 3칸~15칸까지의 가옥(모두 草家)에서 거주하고 있

그러면 河口마을 동막리에서 동성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창녕 성씨 양반 가문의 미성년 호수가 소유했던 300여 명의 노비 양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비의 使役 형태

조선시대 호적 자료에서는 戶首 또는 그 일가족이 소유한 노비를 使役 형태에 따라 크게 ‘率奴婢’와 ‘外方/外居奴婢’, ‘逃亡奴婢’ 등으로 구별하여 기재하고 있었는데,²⁷⁾ 이 자료에서는 소유 노비를 ‘率奴婢’·‘外方奴婢’·‘逃亡奴婢’로 구별하였다.

1765년 성규해의 준호구 자료에 기재된 소유 노비를 사역 형태별로 집계한 결과(〈표 2〉 참조), 솔노비가 전체 기재 노비의 약 25%인 85명(노 37명, 비 48명)이었고, 외방노비가 약 64%인 222명(노 115명, 비 105명, 성별 미상 2명), 도망노비가 약 11%인 38명(노 26명, 비 12명)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8세기 중엽 성규해가 소유하고 있었던 노비의 형태별 구성비는 솔 25%·외방 65%·도망 10% 등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²⁸⁾

있으며, 전체 호주의 약 89%가 5칸 이하에서 거주하였다. 그런데 창녕 성씨 동성마을인 동막리의 경우 6칸 이상(최대 10칸)의 가옥이 다수(전체 6칸 이상 가옥 23호 중 8호/약 35%) 분포하고 있어(유창호, 위의 논문, 62쪽), 가옥 규모로 볼 때 창녕 성씨 호주들의 재산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음을 알 수 있다.

27) 일부 호적 자료에서는 ‘率’ 노비 대신 ‘仰役’ 또는 ‘使喚’ 노비, 그리고 ‘外居/外方’ 노비 대신 ‘收貢’ 노비라는 용어(유형)를 표기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조선시대 호적 자료에 나타난 노비의 사역 형태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전형택, 『조선후기 고문서에 나타난 仰役奴婢의 성격』, 『全南史學』 17, 전남사학회, 2001; 김건태, 『조선후기 私奴婢 파악방식』, 『歷史學報』 181, 역사학회, 2004; 임학성, 『조선시대奴婢制의推移와 노비의 존재 양태』, 『역사민속학』 41, 한국역사민속학회, 2013 등 참조.

28) 다른 군현에서 거주한 양반 가문의 18세기 중엽 준호구·호구단자 자료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전라도 扶安의 부안 김씨는 率 4~6%, 外居 60~70%, 逃亡 20~30%(全炯澤, 『朝鮮後期奴婢身分研究』, 일조각, 1989, 49쪽), 강원도 原州의 안동 권씨는 率 12~13%, 外方 85%, 逃亡 2~3%(이영훈, 『18~19세기 노비 세습원리의 변화-강원도 원주목 權氏 兩班家の 사례분석-』, 『韓國中世史論叢(李樹健教授停年紀念)』, 同 논문간행위원회, 2000, 702~703쪽), 경상도 慶州의 경주 최씨는 率 42%, 外方 52%, 逃亡 6%(권기중, 『조선후기 경주 최부자택의 가족구성과 노비경영-호구단자를 중심으로-』, 『사림』 76, 수선사학회, 2021, 250~252쪽) 등의 사례를 보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외거·외방 노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노비 소유 가문의 가계 경영 양상에 따라 솔노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소유 노비의 형태별 분포

형태 \ 노비	奴	婢	계	비고
率奴婢	37 [20.8]	48 [29.1]	85(24.6)	· 사망자(노 2명, 비 1명) 포함
外方奴婢	115 [64.6]	105 [63.6]	222*(64.3)	* 성별 미상 2명 포함 · 사망자(노 2명) 포함
逃亡奴婢	26 [14.6]	12 [7.3]	38(11.0)	· 사망자(노 1명) 포함
계	178(51.6) [100]	165(47.8) [100]	345*(100)	* 성별 미상 2명 포함

비고) ① () 안의 수치는 전체 노비 수(345명)에 대한 백분율임.

② [] 안의 수치는 각 奴·婢 합계에 대한 백분율임.

한편, 소유 노비의 성별 구성은 성별 미상 2명을 제외하면 노가 178명(51.6%), 비가 165명(47.8%)이 기재되어 노의 소유가 다소 많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노와 비를 균형 있게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형태별 성별 구성을 보면 솔노비는 비(약 29%)의 비율이 노(약 21%)보다 높았으며, 외방노비는 노(약 65%)의 비율이 비(약 64%)보다 다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망노비에서는 노(약 15%)의 비율이 비(약 7%)에 비해 적잖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솔노비 형태의 경우 비를 더 필요로 하였던 반면, 외방노비 형태에서는 노와 비의 필요성 차이가 없었고, 도망노비 형태의 경우 비에 비해 노의 도망이 더 많았음을 살필 수 있었다.²⁹⁾

2) 외방노비의 거주지

외방노비 222명의 거주지를 살펴본 결과(〈표 3〉 참조),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분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을별로는 開城·江華·漣

29) 소유 노비의 사역 형태별 노와 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앞(각주 28번)에서 살핀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川(이상, 경기도 3개 고을), 洪州·保寧·藍浦(이상, 충청도 3개 고을), 高山·咸平·靈光(이상, 전라도 3개 고을), 蔚山·慶州(이상, 경상도 2개 고을), 延安·白川(이상, 황해도 2개 고을), 江陵(강원도), 龍岡(평안도) 등 15개 지역이었다.

〈표 3〉 외방노비의 지역별 분포

지역		노비			비고
		奴	婢	계	
경기도	開城	1	2	3(1.4)	松都 後西江에 거주
	江華	4	0	4(1.8)	-
	漣川	1	2	3(1.4)	-
	소계	6	4	10(4.5)	-
충청도	洪州	6	12	18(8.1)	-
	保寧	13	7	20(9.0)	-
	藍浦	3	4	7(3.2)	-
	소계	22	23	45(20.3)	-
전라도	高山	5	3	8(3.6)	-
	咸平	1	2	3(1.4)	-
	靈光	11	16	27(12.2)	-
	소계	17	21	38(17.2)	-
경상도	蔚山	12	10	23*(10.4)	* 1명(성별 미상) 기재 누락
	慶州	1	0	1(0.5)	蔚山에서 移居
	소계	13	10	24*(10.8)	* 성별 미상 1명 포함
황해도	延安	1	2	3(1.4)	-
	白川	2	0	2(0.9)	2명 모두 사망(‘故’)
	소계	3	2	5(2.3)	-
강원도	江陵	51	44	96*(43.2)	* 1명(성별 미상) 기재 누락
평안도	龍岡	3	1	4(1.8)	-
계		115	105	222*(100)	* 성별 미상 2명, 사망 2명(노) 포함

비고) () 안의 수치는 전체 외방노비 수(222명)에 대한 백분율임.

15개 고을 중 외방노비가 가장 많이 거주한 지역은 강원도 강릉으로 전체 외방노비 가운데 무려 43.2%(96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밖에 전라도 영광(27명/12.2%), 경상도 울산(23명/10.4%), 충청도 보령(20명/9.0%)과 홍주(18명/8.1%), 전라도 고산(8명/3.6%), 충청도 남포(7명/3.2%), 경기도 강화·평안도 용강(이상, 각 4명/1.8%), 경기도 개성·연천·전라도 함평·황해도 연안(이상, 각 3명/1.4%), 황해도 배천(2명/0.9%), 경상도 경주(1명/0.5%) 등으로 분포하였다.³⁰⁾

그런데 이들 외방노비의 거주지 분포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지역(강화·개성·연천·홍주·보령·남포·영광·울산·연안·배천·강릉 등)이 섬이나 강,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규해가 거주했던 통진/보구곶 지역이 해운의 주요 장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방노비의 대다수가 해상교통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였던 주된 이유가 바로 物流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18세기 중엽 성규해 일가는 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도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 상업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3) 노비의 도망 시기

도망노비 38명(노 26명, 비 12명) 중 도망 시기를 기재하지 않은 7명(노 4명, 비 3명)을 제외한 31명(노 22명, 비 9명)의 도망 시기를 살펴보면(〈표 4〉 참조), 가장 먼 시기가 1699년(己卯),³¹⁾ 가장 가까운 시기가 1757년(丁丑)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길게는 66년에서 짧게는 8년 전에 도망간 노비를 기재하고 있었다. 이들 노비의 상전인 성규해의 연령이 17세였으니, 본인이 태어나기 50년 전쯤에 도망간 노비까지 호적자료에 기재하였던 것이다. 50년 전이면 적어도 성규해의 조부 때 발생한 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조부

30) 경주에서 거주한 노 1명(연령 '不知')은 울산에서 同腹들(노 2, 비 2)과 거주하다가 경주로 이주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31) 도망 시기를 '己卯'년으로 기재하였기에 그 시기가 1699년 또는 1759년으로 비정할 수 있으나 도망 노비의 연령이 88세인 점에서 1699년으로 비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인다.

(檄)에서 아들(有烈), 손자(奎海)에게로 도망노비 소유권에 대한 강한 집착이 계속 이어졌음을 엿보게 하겠다.

도망 시기는 1699년부터 1757년 간 총 13차의 연도가 확인되었는데 가장 많은 노비가 도망간 시기는 1724년으로 총 9명(노 8명, 비 1명)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노비가 도망간 시기는 1745년과 1756년, 1757년 등으로 각 4명씩이었다. 그런데 다수 인원이 나타난 시기는 한 가족이 함께 도망하였기에 나타난 양상이었다.

〈표 4〉 소유 노비의 도망 시기 및 연령 분포

성별 시기	노	비	계	비고
1699년	-	88(22)	1	-
1705년	故	-	1	-
1708년	-	76(19)	1	-
1711년	-	85(31)	1	-
1716년	-	82(33), 65(16)	2	-
1719년	81(35)	-	1	-
1724년	92(51), 62(21), 58(17), 54(13), 51(10), 48(7), 45(4), 43(2)	63(22)	9	9명 모두 한 가족
1726년	53(14)	-	1	-
1738년	53(26)	-	1	-
1745년	34(14), 31(11), 24(4)	58(38)	4명	4명 모두 한 가족
1748년	-	21(4)	1명	-
1756년	41(32), 24(15), 18(9), 14(5)	-	4명	1명(24세)을 제외한 3명은 모두 한 가족
1757년	56(48), 17(9), 15(7)	49(41)	4명	4명 모두 한 가족
계	22명	9명	31명	-

비고) 수치는 1765년 당시 연령이며, () 안의 수치는 도망 당시의 연령을 환산한 것임.

한편, 도망 당시의 연령을 분석해 보았더니 가장 어린 나이가 2세였고(1724년), 가장 많은 나이가 51세(역시 1724년)였다. 이 두 명은父子 관계였다. 조선 후기 어느 한 양반가문의 준호구 자료에 국한된 양상이지만 18세기 사노비가 상전으로부터 벗어나 도망칠 수 있었던 연령의 최상치는 50대 초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별 분포는 10세 미만(2세~9세)이 9명(30.0%)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전반(10세~14세)이 5명(16.7%), 10대 후반(15~19세)이 4명(13.3%), 20대 전반(20세~24세)과 30대 전반(30세~34세)이 각 3명(10.0%), 30대 후반(35세~39세)이 2명(6.7%), 이밖에 20대 후반(26세)·40대 전반(41세)·40대 후반(48세)·50대 전반(51세)이 각 1명(3.3%) 등이었다. 따라서 14세 미만 때 도망한 노비가 14명으로 전체 도망노비의 46.7%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 연령대의 노비는 자의라기보다는 부모가 도망칠 때 함께 데리고 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자의에 의해 도망쳤을 것으로 여겨지는 10대 후반 이상은 총 16명으로 전체 도망노비의 53.3%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10대 후반~30대 연령 때 도망친 노비가 13명으로 전체 도망노비의 43.3%였다. 결국 이들 청장년대의 노비가 10대 전반 이하의 자녀를 대동하고 도망쳤다는 경향을 살필 수 있었다.

4) 노비의 연령

사망자와 연령 미상자를 제외한 전체 노비 271명(노 142명, 비 129명)의 평균 연령은 44.8세였으며, 성별로는 노가 43.0세, 비가 46.7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에 비해 비의 평균 연령이 4세 정도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형태별 평균 연령은 솔노비가 31.0세(노 28.7세, 비 32.6세), 외방노비가 51.1세(노 48.9세, 비 53.6세), 그리고 도망노비가 47.7세(노 41.7세, 비 60.3세)였다. 성별에서도 솔노비와 외방노비의 경우 노에 비해 비의 평균 연령이 4, 5세 정도 더 높았지만, 도망노비에서는 무려 노에 비해 비의 평균 연령이 무려 18세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노비의 도망 시기가

오래되면서 연로한 노비 중 노가 먼저 사망한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도망노비 중 도망 시기가 오랜 경우에 비가 집중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앞의 <표 4> 참조).

한편 연령별 분포를 보면(<표 5> 참조), 전체로는 ① 10대(13.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② 20대(11.3%), ③ 50대(10.7%), ④ 30대(10.1%), ⑤ 40대(9.5%), ⑥ 60대(8.6%), ⑦ 70대(8.3%), ⑧ 80대(5.3%), ⑨ 10세 미만(1.8%), ⑩ 90대(1.5%) 등의 순서를 보였다.³²⁾ 따라서 10대~50대의 연령층이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노는 ① 10대(8.9%), ② 50대(5.9%), ③ 20대·40대(각 5.6%), ⑤ 30대(4.5%), ⑥ 60대(4.2%), ⑦ 70대(3.9%), ⑧ 80대(2.1%), ⑨ 90대(0.9%), ⑩ 10세 미만(0.6%) 등의 순서를 보였다. 그리고 비는 ① 20대·30대(각 5.6%), ③ 50대(4.7%), ④ 10대·60대·70대(각 4.5%), ⑦ 40대(3.9%), ⑧ 80대(3.3%), ⑨ 10세 미만(1.2%), ⑩ 90대(0.6%) 등의 순서를 보였다. 따라서 노의 경우는 전체 연령 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 반면, 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10대와 40대의 비율이 낮고 60대와 70대의 비율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표 5> 소유 노비의 연령 분포

연령 형태 · 성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미상	계
		솔노비	노	2 (2.4)	14 (17.1)	5 (6.1)	4 (4.9)	-	6 (7.3)	2 (2.4)	-	-	-
비	4 (4.9)		7 (8.5)	9 (11.0)	14 (17.1)	3 (3.7)	6 (7.3)	2 (2.4)	1 (1.2)	-	-	1	47
소계	6 (7.3)		21 (25.6)	14 (17.1)	18 (22.0)	3 (3.7)	12 (14.6)	4 (4.9)	1 (1.2)	-	-	3	82 (100)
외방노비	노	-	12 (5.5)	10 (4.6)	8 (3.7)	14 (6.4)	8 (3.7)	11 (5.0)	13 (6.0)	6 (2.8)	2 (0.9)	29	113
	비	-	8 (3.7)	9 (4.1)	4 (1.8)	8 (3.7)	8 (3.7)	11 (5.0)	13 (6.0)	8 (3.7)	2 (0.9)	34	105

32) 최연소자는 3세의 率奴였으며, 최연로자는 外方과 逃亡에서 확인되는 92세의 노로 나타났다.

	소계	-	20 (9.2)	19 (8.7)	12 (5.5)	22 (10.1)	16 (7.3)	22 (10.1)	26 (11.9)	14 (6.4)	4 (1.8)	63	218 (100)
도망노비	노	-	4 (10.8)	4 (10.8)	3 (8.1)	5 (13.5)	6 (16.2)	1 (2.7)	-	1 (2.7)	1 (2.7)	-	25
	비	-	-	1 (2.7)	1 (2.7)	2 (5.4)	2 (5.4)	2 (5.4)	1 (2.7)	3 (8.1)	-	-	12
	소계	-	4 (10.8)	5 (13.5)	4 (10.8)	7 (18.9)	8 (21.6)	3 (8.1)	1 (2.7)	4 (10.8)	1 (2.7)	-	37 (100)
전체	노	2 (0.6)	30 (8.9)	19 (5.6)	15 (4.5)	19 (5.6)	20 (5.9)	14 (4.2)	13 (3.9)	7 (2.1)	3 (0.9)	31	173
	비	4 (1.2)	15 (4.5)	19 (5.6)	19 (5.6)	13 (3.9)	16 (4.7)	15 (4.5)	15 (4.5)	11 (3.3)	2 (0.6)	35	164
	소계	6 (1.8)	45 (13.3)	38 (11.3)	34 (10.1)	32 (9.5)	36 (10.7)	29 (8.6)	28 (8.3)	18 (5.3)	5 (1.5)	66	337 (100)

비고) ① () 안의 수치는 각 '소계' 인원수 대비 백분율임.

② 기계가 누락되어 성별과 연령이 미상인 외방노비 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③ 노비 형태별 최연소/최연로 연령 및 성별은 아래와 같음.

- 솔노비 : 3세(노)/78세(비)
- 외방노비 : 12세(비)/92세(노)
- 도망노비 : 14세(노)/92세(노)

형태별로는 솔노비의 경우 ① 10대(25.6%), ② 30대(22.0%), ③ 20대(17.1%), ④ 50대(14.6%), ⑤ 10세 미만(7.3%), ⑥ 60대(4.9%), ⑦ 40대(3.7%), ⑧ 70대(1.2%) 등의 순서를 보였다. 솔노비에서는 80대와 90대가 기재되지 않았다. 성별로는 노가 ① 10대(17.1%), ② 50대(7.3%), ③ 20대(6.1%), ④ 30대(4.9%), ⑤ 10세 미만·60대(각 2.4%)를 보이며 80대·90대와 함께 40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비는 ① 30대(17.1%), ② 20대(11.0%), ③ 10대(8.5%), ④ 50대(7.3%), ⑤ 10세 미만(4.9%), ⑥ 40대(3.7%), ⑦ 60대(2.4%), ⑧ 70대(1.2%)의 분포를 보였다.

다음 외방노비의 경우 ① 70대(11.9%), ② 40대와 60대(각 10.1%), ④ 10대(9.2%), ⑤ 20대(8.7%), ⑥ 50대(7.3%), ⑦ 80대(6.4%), ⑧ 30대(5.5%), ⑨ 90대(1.8%) 등의 순서를 보였다. 외방노비에서는 10세 미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성별로는 노가 ① 40대(6.4%), ② 70대(6.0%), ③ 10대(5.5%),

④ 60대(5.0%), ⑤ 20대(4.6%), ⑥ 30대·50대(각 3.7%), ⑧ 80대(2.8%), ⑨ 90대(0.9%) 등의 분포를 보였으며, 비는 ① 70대(6.0%), ② 60대(5.0%), ③ 20대(4.1%), ④ 10대·40대·50대·80대(각 3.7%), ⑧ 30대(1.8%), ⑨ 90대(0.9%)의 분포를 보였다.

마지막 도망노비의 경우 10대 미만과 90대 이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① 50대(21.6%), ② 40대(18.9%), ③ 20대(13.5%), ④ 10대·30대·80대(각 10.8%), ⑦ 60대(8.1%), ⑧ 70대·90대(2.7%) 등의 순서를 보였다. 성별로는 노가 ① 50대(16.2%), ② 40대(13.5%), ③ 10대·20대(각 10.8%), ⑤ 30대(8.1%), ⑥ 60대·80대·90대(각 2.7%) 등의 분포를 보이며 10세 미만·90대와 함께 70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비는 10세 미만·90대와 함께 10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① 80대(8.1%), ② 40대·50대·60대(각 5.4%), ⑤ 20대·30대·70대(각 2.7%)의 분포를 보였다.

이상, 소유 노비의 연령 분포를 종합해 보면, 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가 고령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솔노비에 비해 외방·도망노비가 역시 고령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음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한편, 연령을 모른다고(‘不知’) 기재한 노비는 총 66명인데 솔노비 3명(노 2명, 비 1명)을 제외하고 63명(노 29명, 비 34명 : 95.5%) 모두 외방노비들이었다. 아무래도 상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외방노비의 경우 상전이 노비의 나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때문으로 보인다.³³⁾

반면 도망노비에게서는 연령을 ‘不知’로 기재한 노비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호적 자료에서 도망노비의 연령이 빠짐없이 기재된 까닭은 소유 재산인 노비에 대한 상전의 강한 집착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연령을 ‘不知’로 기재한 노비 66명 가운데 母가 良女인 자가 총 1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연령 ‘不知’ 노비의 28.8%를 차지하는 적잖은 규모였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1731년부터 적용된 ‘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

33) 연령이 ‘不知’로 기재된 외방노비는 상전과 거주지가 멀지않은 경기도(개성·강화·연천)와 황해도(연안)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충청도(8명)·전라도(10명)·경상도(16명)·강원도(30명) 등, 상전과 거리가 먼 지역에서 나타났다.

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조선 후기 양반가문에서 노비수를 증대시키는 주된 방법 가운데 하나가 良賤交婚이었다.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노비 신분이면 그 소생은 모두 노비로 삼는 ‘一賤則賤’ 제도가 적용된 때문이었는데, 특히 자기 소유의 노를 양녀와 혼인시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노비로 삼는 일이 늘어났다.³⁴⁾ 이에 조정에서는 양인 인구의 노비화를 막기 위해 노와 양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모의 신분에 따라 良人으로 귀속시키는 조치를 여러 차례 시도하였고 마침내 1731년에 이르러 영구 법으로 확정하였던 것이다.³⁵⁾ 이 준호구 자료에서 확인되는 19명의 양녀 소생 연령 ‘不知’ 노비 중 상당수는 아마 1731년 이후에 태어난 자들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모의 신분을 따라 노비가 아닌 양인 신분이 되었어야 했는데, 소유 노비를 증대하려는 상전의 입장에서는 호구신고 시 이들의 연령을 ‘不知’라고 기재하여 그들을 계속 노비 신분으로 유지시켜 소유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18세기 중엽 이후의 호적 자료에서 적잖게 확인되는 노 양처 간 소생의 연령 ‘不知’ 기재 및 위조(즉, 1731년 이전으로 출생 신고), 양처의 신분을 ‘不知’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는 현상 등은 바로 ‘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의 준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양반 상전의 편법이자 탈법이었다.

4. 노비의 혼인 및 가족 구성

이제, 성규해가 소유한 노비의 혼인 및 가족 구성 양태를 살펴보겠는데, 노비(특히, 私奴婢)의 경우 혼인과 그 결과로서 형성되는 가족 구성은 노비 본인들이 아닌 상전의 의사에 따라 피동적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도망노비에게서 나타나는 가족 구성의 양태는 노비 본인들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결과

34) 韓榮國, 『朝鮮 中葉의 奴婢結婚樣態(上)-1609년의 蔚山戶籍에 나타난 事例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75·76합, 역사학회, 1977. 이 연구에 따르면 17세기 초 경상도 울산지역의 양천교혼율이 무려 절반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35) 平木實, 『十七・八世紀における奴良妻所生の歸屬について』, 『朝鮮學報』 61, 朝鮮學會, 1971(平木實, 『朝鮮後期 奴婢制 研究』, 지식산업사, 1982에 所收).

었다는 점에서 솔노비 및 외방노비와의 차이를 보였다.

1) 혼인

자료 분석 결과 총 165건의 노비 혼인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는데(〈표 6〉 참조),³⁶⁾ 혼인 유형은 노비 간의 신분 ‘內婚’과 良賤 간의 ‘交婚’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 그 비율은 내혼이 약 69%, 교혼이 약 31%로 나타났다.

〈표 6〉 소유 노비의 혼인 유형

형태 \ 혼인	奴(父)+婢(母)			良賤 交婚			계
	班奴+班婢	기타	소계	班奴+良女	良人+班婢	소계	
솔노비	17(34.7)	22(44.9)	39(79.6)	1(2.0)	9(18.4)	10(20.4)	49(100)
외방노비	15(16.3)	43(46.7)	58(63.0)	13(14.1)	21(22.8)	34(37.0)	92(100)
도망노비	6(25.0)	11(45.8)	17(70.8)	2(8.3)	5(20.8)	7(29.2)	24(100)
계	38(23.0)	76(46.1)	114(69.1)	16(9.7)	35(21.2)	51(30.9)	165(100)

비고) ①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② ‘기타’로 분류한 혼인 유형은 아래와 같음.

- 솔노비 : ‘班奴’+私婢(또는 ‘婢’) 2건, 私奴(또는 ‘奴’)+班婢 11건, 贖奴+班婢 1건, 班奴+미상 1건, 미상+班婢 7건

- 외방노비 : 私奴(또는 ‘奴’)+班婢 18건, 미상+班婢 25건

- 도망노비 : 私奴(또는 ‘奴’)+班婢 7건, 班奴+미상 1건, 미상+班婢 3건

③ 부모의 직역을 모두 기재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한 경우 : 외방노비 5건, 도망노비 1건임.

혼인 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혼에서는 상전인 성규해의 소유 노비를 칭하는 ‘班奴’와 ‘班婢’ 간의 혼인이 약 23%, 〈표 6〉에서 ‘기타’로 분류한 성규해 소유 노비(班奴·班婢)와 타인 소유의 노비(私奴·私婢)와의

36) 소유 노비의 혼인 사실 및 양태는 그 부모 기재를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연령으로 미루어 보아 成婚하였을 것이 분명한 노비라도 그 소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혼인 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혼인이 약 46%로 나타났다. 다음, 교혼에서는 반노와 양녀 간의 혼인이 약 10%, 반비와 양인 간의 혼인이 약 21%로 나타났다.

한편 노비의 사역 형태별 혼인 양태를 보면, 먼저 솔노비의 경우 내혼이 약 80%로 높았으며 특히 반노와 반비 간의 혼인이 약 35%를 보여 다른 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외방노비의 경우에서는 교혼이 약 37%로 높았으며 특히 반노와 양녀와의 교혼이 약 14%를 보여 역시 다른 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도망노비는 전체 형태의 분포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나 특별히 차별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상전이 거느리면서 使喚·仰役하고 있던 솔노비는 상전 소유인 반노와 반비 간의 혼인이 우세한 편이었고, 상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외방노비에게서는 양친 교혼, 그 중에서도 반노와 양녀와의 혼인이 다소 우세한 편이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2) 가족 구성

전체 345명의 소유 노비 중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총 296명으로 나타나 약 86% 정도의 노비가 가족으로 연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표 7〉 참조). 형태별로는 솔노비에서는 약 88%(전체 솔노비 대비), 외방노비에서는 약 89%(전체 외방노비 대비), 그리고 도망노비에서는 약 63%(전체 도망노비 대비) 등이 가족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족 관계가 확인된 노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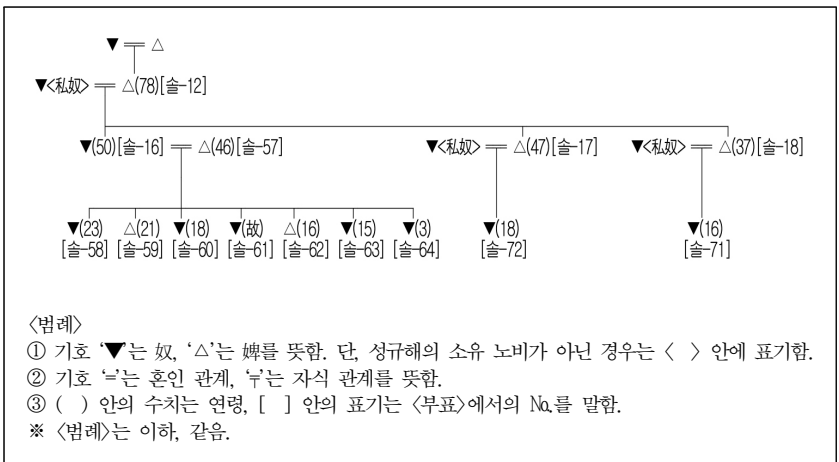
형태 \ 구분	전체 노비수	가족 연계 노비수	연계 비율
솔노비	85명	75명	88.2%
외방노비	222명	197명	88.7%
도망노비	38명	24명	63.2%
계	345명	296명	85.8%

이처럼 소유 노비의 86%가 가족 관계로 연계되어 있었다는 점을 통해 볼 때, 18세기 성규해 일가의 소유 노비수 증대 방법은 주로 소유 노비들 간의 혼인과 자녀 생산에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18세기 중엽 성규해 일가의 경우 소유 노비 인구의 증가 방식은 세습노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면 소유 노비의 가족 구성 양태를 몇몇 대표적인 사례로써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슬노비의 사례

<부표>에서 ‘슬-12’로 기재된 비는 78세로 부모는 班奴와 班婢였다. 班奴/班婢는 호적 등의 자료에서 타인 소유인 私奴/私婢와 구별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노비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슬-12’ 비의 부모 역시 성규해 일가의 소유 노비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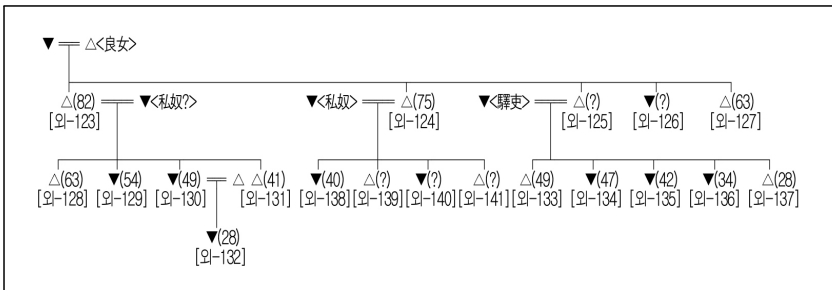
소유 노비 중 ‘슬-16’ 노(50세)와 ‘슬-17’ 비(47세), ‘슬-18’ 비(37세)가 ‘슬-12’의 자녀로 확인되었다. 이들 자녀의 부는 私奴였다. ‘슬-12’는 타인 소유의 사노와 혼인하여 자녀들을 생산하였고, 조선시대 노비 소생의 歸屬을

적용한 ‘賤者隨母法’에 의해 모의 상전인 성규해의 소유 노비가 되었던 것이다. ‘솔-16’은 성규해 소유의 반비 ‘솔-57’(46세)와 혼인하였고 둘 사이의 소생으로 노 5명과 비 2명이 확인된다. ‘솔-58’ 노(23세), ‘솔-59’ 비(21세), ‘솔-60’ 노(18세), ‘솔-61’ 노(故), ‘솔-62’ 비(16세), ‘솔-63’ 노(15세), ‘솔-64’ 노(3세) 등이다. ‘솔-17’은 私奴와 혼인하였고 그 소생으로 ‘솔-72’ 노(18세)가 확인된다. ‘솔-18’ 역시 私奴와 혼인하였는데 그 소생이 ‘솔-71’ 노(16세)였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이 가족은 총 13명(사망자 제외)의 3세대 가족으로 연계, 구성되어 있었다.

(2) 외방노비의 경우

강릉에서 거주한 ‘외-123’ 비(82세)와 ‘외-124’ 비(75세), ‘외-125’ 비(연령 미상), ‘외-126’ 노(연령 미상), ‘외-127’ 비(63세) 등은 반노와 양녀 사이에서 태어난 남매들이다. 연령으로 보아 이들 남매는 1731년 이전에 태어났기에 ‘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모두 성규해의 소유 노비가 되었던 것이다.



‘외-123’은 사노로 보이는 자와 혼인하였고 그 소생으로 ‘외-128’ 비(63세)와 ‘외-129’ 노(54세), ‘외-130’ 노(49세), ‘외-131’ 비(41세) 등이 확인된다. ‘외-124’ 역시 사노와 혼인하였고 그 소생으로 ‘외-138’ 노(40세)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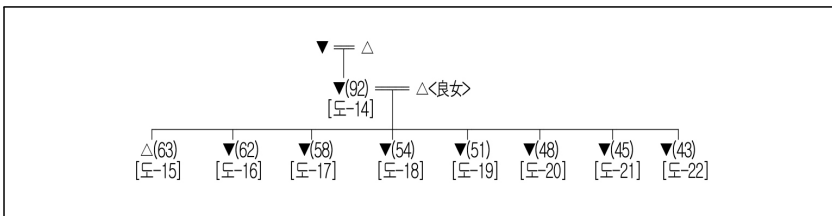
-139' 비(연령 미상), '외-140' 노(연령 미상), '외-141' 비(연령 미상) 등이 확인된다. 그리고 驛吏와 혼인한 '외-125'의 소생으로는 '외-133' 비(49세), '외-134' 노(47세), '외-135' 노(42세), '외-136' 노(34세), '외-137' 비(28세) 등이 확인되었다. '외-126'과 '외-127'의 혼인 관계 및 자녀 생산 여부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외-128'~'외-137'의 경우 그 연령으로 미루어보아 혼인 및 자녀 생산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외-130'이 반비와 혼인하였고 그 소생인 '외-132' 노(28세) 만이 확인될 뿐이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이 가족은 총 19명의 3세대 가족으로 연계, 구성되어 있었다.

(3) 도망노비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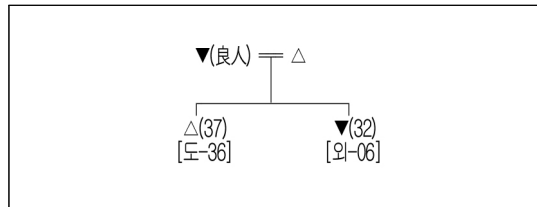
반노와 반비 사이에서 태어난 '도-14' 노(92세)는 양녀와 혼인하였고 그 소생으로는 '도-15' 비(63세), '도-16' 노(62세), '도-17' 노(58세), '도-18' 노(54세), '도-19' 노(51세), '도-20' 노(48세), '도-21' 노(45세), '도-22' 노(43세) 등이 확인된다. 이 가족의 경우 연령으로 미루어볼 때 혼인 및 자녀 생산이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역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가족은 총 9명의 2세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724년에 한 가족이 모두 도망친 것으로 기재되었다. 도망쳤을 당시의 연령은 부가 51세였고 자녀는 22세에서 2세까지였다(앞의 <표 4> 참조).

(4) 복합 유형의 경우

준호구 자료에 기재된 성규해 일가의 노비 중 유일하게 가족 관계가 두 소유 형태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이다. 강화도에 거주한 노 '외-06'(32세)와 도망 비 '도-36'(37세)가 남매 관계로 확인된 것이다. 이들 남매의 부모는 양인과 반비였다. '도-36'의 도망 시기는 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소유 노비의 가족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솔노비와 외방노비, 도망노비의 각 형태 간에 서로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단 1건을 제외하면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 노비를 각 사역 형태별로 단절하여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 주는데, 이는 18세기 성규해 일가의 노비 경영 방식의 특징이었다고 하겠다.

이와 아울러 외방노비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96명/43.2%)하고 있었던 강릉 거주 노비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방노비의 대다수는 해당 지역에서 상전가의 토지경영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독자적 경영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던 것으로 이해된다.³⁷⁾ 그렇지만 18세기 중엽 성규해 준호구에서 나타나는 외방노비의 43%가 강릉에서 거주하였던 특이한 현상은 강릉 거주 노비들의 '독자적 생계'로만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색한 면이 없지 않다. 굳이 강릉 지역에 소재하였을 상전가 토지 경작과 관련된 현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상전가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의도된 외방 거주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가능성이 짙다고 본다.

37) 전형택, 앞의 책, 67쪽.

뿐만 아니라 강릉 거주 외방노비의 대다수가 가족 관계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성규해 일가에서 마련 집단 家戶 아니면 가족별로 독립된 家戶에서 거주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의 경우라면 여러 개의 가호 정도면 되겠지만, 후자라면 96명의 소유 노비가 적어도 수십여 개의 가호에서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강릉 거주 외방노비가 각자 알아서 거처를 마련하였다기 보다, 강릉 지역에서의 경제 활동을 위해 상전가에서 마련한 ‘의도’된 거처에서 거주하였던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5. 맺음말

이상, 미국 하와이대학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戶籍簿寫』 자료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 자료 책에 수록된 88건의 호적 자료 중 “1765년 通津 成奎海 准戶口”를 택하여 18세기 중엽 경기도의 해안 마을에서 거주하였던 어느 한 양반 사족이 소유한 345명의 노비 양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확인된 내용 및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에는 소유 노비의 使役 형태를 ‘率奴婢(秩)’·‘外方奴婢(秩)’·‘逃亡奴婢(秩)’ 등으로 구별하여 기재하였는데, 전체 노비 가운데 솔노비가 약 25%, 외방노비가 약 65%, 도망노비가 약 10%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였다. 성별로는 노가 약 52%, 비가 약 48%로 나타나 소유 노비의 성별 분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유 노비 중 가장 많았던 외방노비는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충청도·전라도에 각 3개 고을, 경상도·황해도에 각 2개 고을, 강원도·평안도에 각 1개 고을 등, 총 15개 지역에 분포하였다. 그 가운데 강원도 江陵에만 외방노비의 약 43%가 集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반도의 서해 경기도 通津에 거주한 上典 창녕 성씨 일가가 동해 지역에 위치한 강릉과 매우 특별한 연고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셋째, 전체 소유 노비의 평균 연령은 약 45세였으며, 성별로는 노가 약 43

세, 비가 약 47세로 나타났다. 사역 형태별 평균 연령은 솔노비가 약 31세(노 29세, 비 33세), 외방노비가 약 51세(노 49세, 비 54세), 도망노비가 약 48세(노 42세, 비 60세)였다. 따라서 노와 비교해 볼 때 비가 다소 고령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넷째, 연령별 분포는 최연소 3세(솔노)에서 최연로 92세(외방노와 도망노)였으며, 연령대로는 ① 10대(13.3%), ② 20대(11.3%), ③ 50대(10.7%), ④ 30대(10.1%), ⑤ 40대(9.5%), ⑥ 60(8.6%), ⑦ 70대(8.3%), ⑧ 80대(5.3%), ⑨ 10세 미만(1.8%), ⑩ 90대(1.5%) 등의 순서를 보였다.

다섯째, 연령을 모른다고(‘不知’) 기재한 노비 총 66명이었는데 솔노비는 3명의 불과하였고, 나머지 63명(약 96%)은 모두 외방노비였다. 아무래도 외방노비의 경우 상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연령 파악이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겠다. 반면 상전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던 도망노비의 경우 모두 연령을 기재하고 있어 소유 재산인 노비에 대한 창녕 성씨 일가의 강한 집착을 엿볼 수 있었다.

여섯째, 혼인 유형은 노비 간의 신분 ‘內婚’이 약 70%, 良賤 간의 ‘交婚’ 약 30%로 나타났다. 내혼에서는 成奎海의 소유였던 ‘班奴’와 ‘班婢’ 간의 혼인이 약 23%, 成奎海 소유 노비(班奴·班婢)와 타인 소유의 노비(私奴·私婢)와의 혼인이 약 46%로 나타났다. 교혼에서는 반노와 양녀 간의 혼인이 약 10%, 반비와 양인 간의 혼인이 약 21%로 나타났다.

일곱째, 전체 소유 노비 중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약 86% 정도로 나타나 조선 후기 양반가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노비의 경우 대다수가 가족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솔노비와 외방노비 간에는 서로 가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18세기 성규해 일가의 경우 소유 노비를 사역 형태별로 단절하여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살필 수 있었다.

이 논문은 해외 소재 한국학 자료에 대한 관심과 연구 활용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연구 결과가 비록 사례 연구로 국한되지만, 조선 후기 양반 사족이 소유한 사노비의 양태를 이해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1. 자료

‘1765년 通津 成奎海 准戶口’, 『戶籍簿寫』(미국 하와이대학 도서관 소장. 소장 번호 : East Asia DS 901.P5 V.317)에 所收.

2. 단행본

Minako I. Song · Masato Matsui, *Japanese Sources on Korea in Hawaii*,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 Honolulu, 1980.

全炯澤, 『朝鮮後期奴婢身分研究』, 일조각, 1989.

平木 實, 『朝鮮後期 奴婢制 研究』, 지식산업사, 1982.

3. 논문

권기중, 『조선 후기 경주 최부자택의 가족구성과 노비경영-호구단지를 중심으로-』, 『사림』 76, 수선사학회, 2021.

김영나, 『17~18세기 소수서원 노비의 혼인과 가족』, 『嶺南學』 73,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0.

_____, 『17~19세기 병산서원 노비의 존재양상』, 『大東漢文學』 67, 대동한문학회, 2021.

_____, 『18세기 옥산서원 노비의 양상』, 『民族文化論叢』 79,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1.

김익환, 『17~19 진천 평산 신씨의 노비 소유와 노비의 존재양상』, 『韓國學論叢』 44,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5.

_____, 『진천 평산 신씨 노비 가족의 존재양상-노비의 결혼과 가계 계승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52, 2018.

李海濤, 『朝鮮後期 湖西地方 한 兩班家の 奴婢所有實態-公州中湖·慶州李家所傳 戶口單子分析-』, 『湖西史學』 8·9합, 호서사학회, 1980.

문숙자, 『16~17세기 兩班家 노비 가족의 존재 형태-固城李氏 臨淸閣 分財記 분석을 통하여-』, 『古文書研究』 32, 한국고문서학회, 2008.

문현주, 『조선 후기 戶口單子和 准戶口의 작성과정 연구-慶州府의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38, 한국고문서학회, 2011.

박경하·황기준, 『조선 후기 忠淸 懷德縣 宋村理 지역의 私奴婢 존재 양상-恩津宋氏 同春堂 後孫家 호적자료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3, 2017.

西川孝雄, 『17·8世紀安東·星州兩班『戶籍』の一檢討-率居及び外居奴婢の分析-』, 『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報告』 1, 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會, 1972.

유창호, 『20세기 초 경기도 통진군 '보구곶'마을 사람들의 생활 양태-1901년(光武 5) 通津郡 浦口串面 戶籍 자료 분석 사례-』, 『역사민속학』 40,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李榮薰, 『朝鮮社會 率居·外居奴婢區分再考』, 『韓國近代經濟史研究의 成果 : 秋堰 權丙卓 博士 華甲紀念論叢 II』, 형설출판사, 1989.

이영훈, 『18~19세기 노비 세습원리의 변화-강원도 원주목 權氏 兩班家の 사례분석-』, 『韓國中世史論叢(李樹健教授停年紀念)』, 同 논문간행위원회, 2000.

- 김건태, 『조선후기 私奴婢 파악방식』, 『歷史學報』 181, 역사학회, 2004.
- 이원희, 『가지아마 도시유키(梶山季之)와 조선』, 『日本語文學』 38, 일본어문학회, 2007.
- 임학성, 『1910년 3월 大韓帝國 度支部에서 活字로 간행한 “1663년 漢城府 北部戶籍”』, 『古文書研究』 58, 2021.
- _____, 『조선시대 奴婢制의 推移와 노비의 존재 양태』, 『역사민속학』 41, 한국역사민속학회, 2013.
- 전경목, 『도망노비에 대한 새로운 시선』, 『전북사학』 40, 전북사학회, 2012.
- 전중환, 『근대이행기 조강 연안의 포구 성쇠와 포구 네트워크』, 『대한지리학회지』 52-2, 대한지리학회, 2017.
- 전형택, 『조선 후기 한 양반가의 호적자료를 통해 본 사노비의 존재양태-광주 전의이씨 문의공파 증가 소장 고문서의 사례 분석-』, 『朝鮮時代史學報』 15, 조선시대사학회, 2000.
- _____, 『조선후기 고문서에 나타난 仰役奴婢의 성격』, 『全南史學』 17, 전남사학회, 2001.
-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자료를 통해 본 사노비의 존재양태-대구 경주최씨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1, 역사문화학회, 2008.
- 崔承熙, 『戶口單子·准戶口에 대하여』, 『奎章閣』 7, 서울대 도서관, 1983.
- 平木實, 『十七·八世紀における奴良妻所生の帰屬について』, 『朝鮮學報』 61, 朝鮮學會, 1971.
- 韓榮國, 『朝鮮 中葉의 奴婢結婚樣態(上)-1609년의 蔚山戶籍에 나타난 事例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75·76합, 역사학회, 197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종합정보서비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부표〉 1765년 通津府 甫口串面 東幕里 거주 幼學 成奎海의 소유 노비 현황

No	성별	이름(연령)	부	모	비고
술-01	노	萬春(53)	班奴 元伊	班婢 次眞	
술-02	비	本得(31)			
술-03	비	甘節(52)	班奴 石同	班婢 命今	甘節 : Na'술-25'~'술-27'의 母
술-04	노	眞萬(59)	良人 莫俊	班婢 古邑丹	
술-05	비	三月(50)	班奴 順立	班婢 業丹	三月 : Na'술-31'~'술-33'의 母
술-06	비	世分(57)	良人 '名不知'	班婢 三月	世分 : Na'술-07'~'술-09'의 母
술-07	비	秀礼(故)	良人 金永萬	班婢 世分	母 世分 ⇨ Na'술-06'
술-08	비	秀丹(24)			
술-09	비	秀梅(19)			
술-10	노	從萬(52)	私奴 介山	班婢 久礼	從萬 : Na'술-78', '술-79'의 父
술-11	노	順萬(故)			
술-12	비	愛今(78)	班奴 次仁	班婢 愛礼	愛今 : Na'술-16'~'술-18'의 母
술-13	비	丁今(66)	班奴 順日	班婢 時礼	丁今 : Na'술-21'의 母
술-14	노	三金(57)	班奴 順男	班婢 盍礼	
술-15	노	岳發(60)	班奴 順立	良女 '名不知'	
술-16	노	守康(50)	私奴 萬竜	班婢 愛今	母 愛今 ⇨ Na'술-12'. 守康 : Na'술-58'~'술-64'의 父 從節 : Na'술-72'의 母. 守節 : Na'술-71'의 母
술-17	비	從節(47)			
술-18	비	守節(37)			
술-19	노	士巾(67)	班奴 莫光	私婢 連業	士今 : Na'술-34'의 母
술-20	비	士今(59)			
술-21	비	墨世(30)	良人 李丁益	班婢 丁今	母 丁今 ⇨ Na'술-13'
술-22	노	哲澄(39)	班奴 巨卜	班婢 礼丹	哲澄 : Na'술-73'~'술-75'의 父 業切 : Na'술-80'의 母
술-23	비	業烈(38)			
술-24	비	業切(35)			
술-25	비	哲今(26)	班奴 雀金	班婢 甘切	母 甘切 ⇨ Na'술-03'
술-26	비	分今(23)			
술-27	노	東令(19)			

술-28	비	貴梅(34)			
술-29	비	二每(32)	班奴 一卜	班婢 孝德	母 孝德 ⇨ Na'술-39'
술-30	노	悉乱(19)			
술-31	노	甘孫(29)			
술-32	노	卜男(18)	私奴 奉世	班婢 三月	母 三月 ⇨ Na'술-05'
술-33	노	卜春(14)			
술-34	비	自叱伊(26)	私奴 德奉	班婢 士今	母 士今 ⇨ Na'술-20'
술-35	비	懿節(45)			懿節 : Na'술-81'의 母
술-36	노	再萬(37)	贖奴 丁發	班婢 連業	
술-37	노	再老味(30)			
술-38	노	叟太(13)	班奴 位萬	班婢 應宗	
술-39	비	孝德(58)	私奴 永石	班婢 次丹	孝德 : Na'술-28'~'술-30'의 母
술-40	노	自乙忠(52)			
술-41	비	道娘(34)	良人 姜丁達		
술-42	비	懿春(30)	元業	班婢 永列	父 직역 미기재(奴?)
술-43	노	懿男(28)			
술-44	비	士丹(35)	'名不知'	班婢 一礼	士丹 : Na'술-78', '술-79'의 母
술-45	노	贊奉(30)	私奴 時同	班婢 三列	
술-46	비	永每(60)	'名不知'	班婢 順香	永每 : Na'술-47', '술-48'의 母
술-47	비	惡今(37)	?	班婢 永每	父 미기재, 母 永每 ⇨ Na'술-46'
술-48	노	惡男(20)			
술-49	노	次男(21)	班奴 玆夢	婢 積先	母 직역을 '婢'로만 기재
술-50	비	有德(53)	班奴 有信	班婢 丁德	有德 : Na'술-51', '술-52'의 母
술-51	비	罷去非(24)	良人 海江	班婢 有德	母 有德 ⇨ Na'술-50'
술-52	비	八月(15)			
술-53	비	莫今(32)	'名不知'	班婢 奉列	莫今 : Na'술-82'~'술-85'의 母
술-54	비	世月(36)	'名不知'	班婢 江生	
술-55	비	者丁連伊(22)	姜分也之	班婢 懿德	父 직역 미기재
술-56	비	点丹(36)	'名不知'	班婢 玉上	点丹 ⇨ Na'술-65'의 母
술-57	비	雪云礼(46)	良人 朴俊上	班婢 者斤德	雪云礼 : Na'술-58'~'술-64'의 母

술-58	노	漢命(23)	班奴 守康	班婢 雪云礼	父 守康 ⇨ Na'술-16'. 母 雪云礼 ⇨ Na'술-57'
술-59	비	汗妹(21)			
술-60	노	汗上(18)			
술-61	노	汗云(故)			
술-62	비	汗今(16)			
술-63	노	汗州(15)			
술-64	노	卜彗伊(3)			
술-65	비	奉切(16)	班奴 夫貴	班婢 点丹	母 点丹 ⇨ Na'술-56'
술-66	비	鉄德(22)	良人 全甘孫	班婢 愛礼	
술-67	비	鋤云(20)	班奴 首發	惡德	母 직역 미기재(婢?)
술-68	노	太卜(15)			
술-69	노	太辰(12)			
술-70	노	德俊(19)	班奴 永龍	班婢 玉京	
술-71	노	卜老味(16)	私奴 虎狼	班婢 水節	母 水節 ⇨ Na'술-18'
술-72	노	武述(18)	私奴 孝才	班婢 從節	母 從節 ⇨ Na'술-17'
술-73	노	春愛(18)	班奴 哲澄	班婢 卜礼	父 哲澄 ⇨ Na'술-22'
술-74	비	春今(12)			
술-75	비	甘丁(8)			
술-76	비	女引(18)	班奴 六孫	班婢 千愛	
술-77	비	卜愛(9)			
술-78	비	從今(9)	班奴 從萬	班婢 士丹	父 從萬 ⇨ Na'술-10'. 母 士丹 ⇨ Na'술-44'
술-79	비	從丹(6)			
술-80	노	夫月(17)	私奴 阿只老味	班婢 業切	母 業切 ⇨ Na'술-24'
술-81	비	阿只(15)	砲手 崔太崇	班婢 唵節	母 唵節 ⇨ Na'술-35'
술-82	노	聖卜(7)	私奴 聖巾	班婢 莫今	母 莫今 ⇨ Na'술-53'
술-83	비	業德(不知)			
술-84	노	卜世(不知)			
술-85	노	阿只(不知)			
외-001	노	卜己(39)	班奴 太老味	班婢 水辰	* 거주 지역 : 松都 後西江
외-002	비	心上(29)			

외-003	비	雙禮(22)			
외-004	노	守鉄(37)	班奴 時行	班婢 戊辰	* 거주 지역 : 江華
외-005	노	惟石(32)			
외-006	노	順才(32)	良人 朴萬上	班婢 甘丁	* 거주 지역 : 江華. 順才 : Na.'도-36'의 甥
외-007	노	於仁老味(13)	良人 金甲云	班婢 奉禮	* 거주 지역 : 江華
외-008	노	太位(53)	私奴 戊全	班婢 分德	* 거주 지역 : 漣川
외-009	비	太禮(38)			
외-010	비	太今(35)			
외-011	비	俊切(80)	班奴 癸云	良女 '名不知'	* 거주 지역 : 洪州
외-012	비	甘同(68)			
외-013	비	禮切(57)			
외-014	노	戊才(62)	班奴 癸奉	良女 '名不知'	* 거주 지역 : 洪州
외-015	비	同禮(76)	私奴 有命	班婢 辛今	* 거주 지역 : 洪州
외-016	비	夢生(73)	班奴 得成	班婢 貴禮	* 거주 지역 : 洪州
외-017	노	上立(64)	班奴 癸男	良女 龔知	* 거주 지역 : 洪州
외-018	비	尙今(55)			
외-019	노	彗先(65)	忠善	班婢 於香	* 거주 지역 : 洪州. 父 직역 미기재(奴?). 彗先 : Na.'외-020'의 父
외-020	비	雀德(53)	班奴 彗先	良女 玉眞	* 거주 지역 : 洪州. 父 彗先 ⇔ Na.'외-019'
외-021	노	長守(66)	己先	班婢 五禮	* 거주 지역 : 洪州 父 직역 미기재(奴?)
외-022	노	長海(63)			
외-023	노	貴金(不知)	'名不知'	班婢 欣今	* 거주 지역 : 洪州
외-024	비	莫春(不知)			
외-025	비	忝禮(65)	良人 金孝一	班婢 莫今	* 거주 지역 : 洪州
외-026	비	日上(77)	全山	班婢 業伊	* 거주 지역 : 洪州. 父 직역 미기재(奴?) 無良 : Na.'외-034'의 母
외-027	비	無良(不知)			
외-028	비	次禮(不知)	'名不知'	班婢 先業	* 거주 지역 : 洪州
외-029	노	奉伊(45)	私奴 仁童	班婢 次丹	* 거주 지역 : 保寧. 奉伊 : Na.'외-051'~'외-055'의 父
외-030	노	忝乃(不知)	'名不知'	班婢 莫今	* 거주 지역 : 保寧
외-031	노	奇特(不知)	'名不知'	班婢 仁業	* 거주 지역 : 保寧
외-032	노	己男(不知)			

외-033	비	於禮(70)	‘名不知’	班婢 介之	* 거주 지역 : 保寧. 於禮 : Na‘외-035’~‘외-037’의 母
외-034	비	点愛(42)	‘名不知’	班婢 無良	* 거주 지역 : 保寧. 点愛 : ‘외-38’~‘외-43’의 母. 母 無良 ⇔ Na‘외-027’
외-035	노	謀金(25)	私奴 月奉	班婢 於禮	* 거주 지역 : 保寧 母 於禮 ⇔ Na‘외-033’
외-036	비	謀今(22)			
외-037	노	謀彗伊(15)			
외-038	노	惡同(21)	‘名不知’	班婢 点愛	* 거주 지역 : 保寧 母 点愛 ⇔ Na‘외-034’ Na‘042’와 ‘043’ : 이름 무기재
외-039	노	惡山(19)			
외-040	노	岳共(19)			
외-041	노	惡卜(17)			
외-042	비	? (13)			
외-043	비	? (12)			
외-044	노	石卜(20)	班奴 盛才	班婢 正尙	* 거주 지역 : 保寧
외-045	노	石才(18)			
외-046	노	石卜(15)			
외-047	비	石丹(15)			
외-048	비	‘名不知’ (不知)			
외-049	노	馬庫金(50)	私奴 五月金	班婢 命丹	* 거주 지역 : 藍浦
외-050	노	畚金(42)			
외-051	비	五十丹(28)	班奴 奉伊	班婢 命辰	* 거주 지역 : 藍浦 父 奉伊 ⇔ Na‘외-029’
외-052	노	点彗(21)			
외-053	비	五十禮(18)			
외-054	비	‘名不知’(16)			
외-055	비	‘名不知’(15)			
외-056	비	懿德(91)	班奴 險金	班婢 彗禮	* 거주 지역 : 高山
외-057	노	‘名不知’(75)	禹再昌	班婢 苒非	* 거주 지역 : 高山 父 직역 미기재(良人?)
외-058	비	五月(73)			
외-059	비	永春(86)	班奴 金巨卜	班婢 守理今	* 거주 지역 : 高山
외-060	노	山伊(83)			
외-061	노	貴今(76)			

외-062	노	貴上(72)			
외-063	노	貴延(70)			
외-064	비	命今(不知)	班奴 玆男	良女 '名不知'	* 거주 지역: 咸平. 命今: Na'외-065', Na'외-066'의 母
외-065	비	玉尙(不知)	金卜立	班婢 命今	* 거주 지역: 咸平 父 직역 미기재(良人?). 母 命今 ⇨ Na'외-064'
외-066	노	四明(不知)			
외-067	노	孫奉(83)	班奴 訓立	良女 '名不知'	* 거주 지역: 靈光
외-068	비	風辰(不知)	班奴 鳳學	良女 '名不知'	* 거주 지역: 靈光
외-069	노	共春(不知)			
외-070	노	順嶽(73)	朴位萬	班婢 尙順	* 거주 지역: 靈光
외-071	비	央今(68)			
외-072	비	適介(79)	?	?	* 거주 지역: 靈光 부모 미기재
외-073	비	点上(76)			
외-074	노	順先(83)	私奴 姜率立	班婢 哲今	* 거주 지역: 靈光
외-075	비	順尙(67)			
외-076	비	自望介(83)	'名不知'	班婢 哲辰	* 거주 지역: 靈光
외-077	비	岑化(81)			
외-078	비	岑丹(79)			
외-079	노	自元(75)			
외-080	비	知也今(不知)	丁得立	守里今	* 거주 지역: 靈光 父 직역 미기재(良人?), 母 직역 미기재(班婢?)
외-081	노	別金(不知)			
외-082	비	風里介(86)	丁破會	班婢 風月	* 거주 지역: 靈光 父 직역 미기재(良人?)
외-083	노	宗[?]年(82)			
외-084	비	宗望介(78)			
외-085	노	官金(不知)	官奉	班婢 眞伊	* 거주 지역: 靈光 父 직역 미기재(奴?) 官德: Na'외-091'의 母
외-086	비	官德(不知)			
외-087	노	者斤介(不知)			
외-088	비	一向介(74)	'名不知'	班婢 雪云介	* 거주 지역: 靈光
외-089	비	薰丹(66)	金薰	班婢 風星介	* 거주 지역: 靈光 父 직역 미기재
외-090	노	薰石(69)			
외-091	비	麻音才(64)	'名不知'	班婢 官德	* 거주 지역: 靈光. 母 官德 ⇨ Na'외-086'

외-092	비	德夕介(66)	'名不知'	班婢 七夕非	* 거주 지역: 靈光
외-093	노	於屯(64)			
외-094	노	造莫孫(不知)	鄭奉還	班婢 今月	* 거주 지역: 蔚山. 父 직역 미기재(良人?)
외-095	노	後邑種(84)	鄭日上	班婢 金眞	* 거주 지역: 蔚山 父 직역 미기재(良人?)
외-096	비	者斤眞(73)			
외-097	노	厚男(62)			
외-098	노	者斤老味 (不知)	漢生	班婢 自卍作	* 거주 지역: 蔚山. 父 직역 미기재(奴?) * 命擔: 蔚山에서 慶州로 移去
외-099	노	命擔(不知)			
외-100	비	三月(不知)			
외-101	비	九月(不知)			
외-102	노	二立(不知)	應卜	班婢 於仁助屎	* 거주 지역: 蔚山. 父 직역 미기재(奴?)
외-103	비	二今(不知)			
외-104	노	能貴(不知)	班奴 官同	良女 玉今	* 거주 지역: 蔚山. 能貴: Na'외-113'의 父
외-105	노	者斤老味(91)	?	?	* 거주 지역: 蔚山. 父母 미기재
외-106	노	今男(77)	?	?	* 거주 지역: 蔚山. 父母 미기재
외-107	비	分今(不知)	李凡尙	?	* 거주 지역: 蔚山. 父 직역 미기재. 分今: Na'외-114'~'외-116'의 母
외-108	비	分德(不知)	禁衛軍 金康	?	* 거주 지역: 蔚山 母 미기재
외-109	비	連眞(不知)			
외-110	?	?	兵營都訓導 崔石	?	* 거주 지역: 蔚山. 노비 성별·이름·연령 기재 누락. 母 미기재
외-111	노	月太(51)	牧子 金日承	班婢 二礼	* 거주 지역: 蔚山
외-112	비	月娘(44)			
외-113	노	礼丕(不知)	能貴	'名不知'	* 거주 지역: 蔚山. 父 직역 미기재(班奴). 父 能貴 ⇨ Na'외-104'
외-114	노	元上(不知)	'名不知'	班婢 分今	* 거주 지역: 蔚山 母 分今 ⇨ Na'외-107
외-115	비	莫連(不知)			
외-116	비	者卍延(不知)			
외-117	노	陳順間(不知)	'名不知'	班婢 分德	* 거주 지역: 蔚山
외-118	비	二丹(90)	洪二得	班婢 丕礼	* 거주 지역: 延安 부 직역 미기재(良人?)
외-119	노	古邑孫(78)			

외-120	비	於丹(60)			
외-121	노	丙云(故)	?	?	* 거주 지역: 白川. 부모 미기재
외-122	노	[?]旭(故)	?	?	* 거주 지역: 白川. 부모 미기재
외-123	비	二丁(82)	班奴 二命	良女 '名不知'	* 거주 지역: 江陵 二丁: Na'외-128'~'외-131'의 母 二列: Na'외-133'~'외-137'의 母 二礼: Na'외-138'~'외-141'의 母
외-124	비	二礼(75)			
외-125	비	二列(不知)			
외-126	노	元[?](不知)			
외-127	비	元列(63)			
외-128	비	永丹(63)	季民	班婢 二丁	* 거주 지역: 江陵 母 二丁 ⇨ Na'외-123'. 父 직역 미기재(奴?) 留萬: Na'외-132'의 父
외-129	노	自萬(54)			
외-130	노	留萬(49)			
외-131	비	七今(41)			
외-132	노	士芻(28)			
외-133	비	就分(49)	驛吏 全命學	班婢 二列	* 거주 지역: 江陵 母 二列 ⇨ Na'외-125'
외-134	노	就萬(47)			
외-135	노	就芻(42)			
외-136	노	星芻(34)			
외-137	비	'名不知'(28)			
외-138	노	世大(40)	良人 崔次孫	班婢 二礼	* 거주 지역: 江陵 母 二礼 ⇨ Na'외-124'
외-139	비	者斤(不知)			
외-140	노	禿窠(不知)			
외-141	비	驗德(不知)			
외-142	비	懿德(26)	班奴 元伊	班婢 今礼	* 거주 지역: 江陵
외-143	노	莫男(19)	班奴 元業	班婢 海眞	* 거주 지역: 江陵
외-144	노	允己(65)	私奴 李命立	班婢 次貞	* 거주 지역: 江陵 尙奉: Na'외-148'의 父
외-145	노	海上(53)			
외-146	노	二尙(不知)			
외-147	노	尙奉(45)			
외-148	노	守光(18)	班奴 尙奉	班婢 己眞	* 거주 지역: 江陵. 父 尙奉 ⇨ Na'외-147'
외-149	비	壬辰(不知)	班奴 庚申	良女 点礼	* 거주 지역: 江陵

외-150	비	武本(56)			
외-151	비	戊丹(53)			
외-152	노	士元(75)	驛史 '名不知'	班婢 寮香	* 거주 지역 : 江陵
외-153	노	永述(61)	良人 己得		
외-154	비	命丹(53)			
외-155	비	三月(81)	班奴 丕山	良女 '名不知'	* 거주 지역 : 江陵 三月 : Na'외-166'~'외-169'의 母
외-156	노	有萬(76)			
외-157	노	'名不知' (不知)			
외-158	비	三分(不知)			
외-159	비	己分(77)	私奴 尙承	班婢 丕介	* 거주 지역 : 江陵. 己分 : Na'외-170'~'외-172'의 母
외-160	노	太明(92)	刑曹奴 高承奉	班婢 丕之	* 거주 지역 : 江陵 太京 : Na'외-200'~'외-205'의 父 丕丹 : Na'외-173'~'외-178'의 母 丕奉 : Na'외-206', '외-207'의 父
외-161	노	太京(85)			
외-162	비	丕丹(83)			
외-163	노	莫孫(75)			
외-164	노	丕奉(71)			
외-165	비	太辰(不知)			
외-166	비	世今(不知)	'名不知'	班婢 三月	* 거주 지역 : 江陵 母 三月 ⇨ Na'외-155'
외-167	비	世辰眞(51)			
외-168	노	光得(49)			
외-169	비	五十切(40)			
외-170	노	業山(51)	私奴 '名不知'	班婢 己分	* 거주 지역 : 江陵 母 己分 ⇨ Na'외-159'
외-171	노	牛郎(47)			
외-172	비	'名不知'(43)			
외-173	노	有宗(59)	'名不知'	班婢 丕丹	* 거주 지역 : 江陵 父 萬奉 직역 미기재 母 丕丹 ⇨ Na'외-162'
외-174	노	九立(53)			
외-175	비	九礼(51)			
외-176	비	丁分(不知)			
외-177	비	丁丹(45)			
외-178	노	五十男(40)			
외-179	비	桂礼(34)	'名不知'	班婢 太今	* 거주 지역 : 江陵

외-180	노	斜筒(29)			
외-181	비	今月(不知)			
외-182	비	丁丹(不知)			
외-183	비	三分(46)	班奴 莫先	班婢 今眞	* 거주 지역: 江陵
외-184	노	古音注(36)			
외-185	노	貴亨(27)			
외-186	노	厓先(37)	'名不知'	班婢 永丹	* 거주 지역: 江陵 노비 성별·이름 기재 누락
외-187	?	?(不知)			
외-188	비	'名不知' (不知)			
외-189	노	'名不知' (不知)			
외-190	노	馬郎(27)			
외-191	노	由元(43)	班奴 永述	班婢 介也知	* 거주 지역: 江陵
외-192	노	德奉(40)			
외-193	노	德童(不知)			
외-194	비	'名不知' (不知)			
외-195	노	牛郎(不知)	班奴 有萬	班婢 戊辰	* 거주 지역: 江陵
외-196	노	日屎(41)			
외-197	노	日太(36)			
외-198	비	'名不知'(21)			
외-199	노	'名不知' (不知)			
외-200	노	世江(不知)	班奴 太京	良女 '名不知'	* 거주 지역: 江陵 父 太京 ⇨ Na'외-161'
외-201	노	二江(不知)			
외-202	노	有尙(不知)			
외-203	비	世丁(不知)			
외-204	비	世辰(不知)			
외-205	노	有山(不知)			
외-206	비	允切(不知)	班奴 恣奉	良女 '名不知'	* 거주 지역: 江陵 父 恣奉 ⇨ Na'외-164'
외-207	비	允辰(不知)			

외-208	노	險愧(16)	'名不知'	班婢 夫礼	* 거주 지역: 江陵	
외-209	노	險奉(14)				
외-210	비	聖今(39)	金玉山	班婢 翠分	* 거주 지역: 江陵 父 직역 미기재(良人?)	
외-211	노	太卜(22)				
외-212	비	太月(17)				
외-213	노	童卜(14)	'名不知'	班婢 七今	* 거주 지역: 江陵	
외-214	노	丁金(22)	班奴 尹己	班婢 同眞	* 거주 지역: 江陵	
외-215	비	今月(不知)	'名不知'	班婢 太今	* 거주 지역: 江陵	
외-216	비	乙良(25)	'名不知'	班婢 莫丹	* 거주 지역: 江陵	
외-217	비	乙分(23)				
외-218	비	今月(13)	'名不知'	班婢 丁丹	* 거주 지역: 江陵	
외-219	노	眞男(72)	'名不知'	班婢 仁香	* 거주 지역: 龍岡	
외-220	비	辰列(66)				
외-221	노	老郎(60)				
외-222	노	者斤德(44)	李宗石	班婢 眞礼	* 거주 지역: 龍岡. 父 직역 미기재(良人?)	
도-01	노	於芑(53)	良人 日同	班婢 桂礼	'戊午'(1738년) 도망	
도-02	비	香伊(21)	私奴 卜立	班婢 命今	'戊辰'(1748년) 도망	
도-03	비	二礼(88)	私奴 小日	班婢 莫今	'己卯'(1699년/1759년) 도망	
도-04	노	懿山(故)	미기재	미기재	'乙酉'(1705년) 도망	
도-05	비	者玉(82)	私奴 小日	班婢 哲辰	'丙申'(1716) 도망	
도-06	비	者斤礼(85)	'名不知'	班婢 命礼	'辛卯'(1711년) 도망	
도-07	비	順丁(65)	'名不知'	班婢 生伊	'丙申'(1716년) 도망	
도-08	노	者斤金(81)	良人 官奉	班婢 眞伊	'己亥'(1719년) 도망	
도-09	비	永月(58)	班奴 桂立	'名不知'	永月: Na '도-10'~'도-12'의 母	'乙丑'(1745년) 도망
도-10	노	順大(34)	私奴 之巾	班婢 永月	母 永月 ⇨ Na '도-09'	
도-11	노	三男(31)				
도-12	노	卜老味(24)				
도-13	비	斗去非(76)	砲手 天生	班婢 今礼	'戊子'(1708년) 도망	
도-14	노	貴男(92)	班奴 己尙	班婢 士礼	貴男: Na '도-15'~'도-22'의 父	'甲辰'(1724년) 도망
도-15	노	於卜(62)	班奴 貴男	良女 分伊	父 貴男 ⇨ Na '도-14'	

도-16	비	紉德(63)				
도-17	노	二卜(58)				
도-18	노	三卜(54)				
도-19	노	士卜(51)				
도-20	노	五卜(48)				
도-21	노	六卜(45)				
도-22	노	貴金(43)				
도-23	비	箕仁礼(49)	'名不知'	班婢 於丹	順萬·箕仁礼 : Na.'도-25', '도-26'	'丁丑'(1756년) 도망
도-24	노	順萬(56)	私奴 介山	班婢 九礼	의 부모	
도-25	노	墨去(17)	班奴 順萬	班婢 猗隣礼	父(順萬)·母(箕仁礼) ⇔ Na.'도-24', '도-23'	
도-26	노	織伊(15)				
도-27	노	天金(53)	私奴 五月金	班婢 命丹	'丙午'(1726년) 도망	
도-28	노	從彗(41)	班奴 順一	班婢 時礼	從彗 : Na.'도-29', '도-30'의 父	'丙子'(1756년) 도망
도-29	노	得天(18)	班奴 從彗	班婢 卜察	父 從彗 ⇔ Na.'도-28'	
도-30	노	得萬(14)				
도-31	노	得希(24)	班奴 位彗	班婢 奉礼	'丙子'(1756년) 도망	
도-32	비	者斤列(57)	班奴 自明	良女 '名不知'	者斤列 : Na.'도-34', '도-35'의 母	
도-33	노	雨芳(48)				
도-34	노	成大(31)				
도-35	노	星贊(21)			良人 金惡發	班婢 者斤列
도-36	비	永每(37)	良人 朴萬尙	班婢 甘丁	永每 : Na.'의-06'의 姉	
도-37	비	九月(42)	私奴 馬唐	班婢 玉生		
도-38	노	德三(29)	班奴 永竜	班婢 玉眞		

Aspects of Owned Servants by the Changnyeong Sung Family Who Lived in Tongjinbu (通津府) in the Mid-Eighteenth Century, On the Basis of Copy of *Junhogu* (Extract of Family Registers) Possessed by the University of Hawaii

Lhim, Hak-Se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and introduce some materials on Korean studies which are held abroad, and to get historical understanding by studying them. The author gives a brief introduction to a book named *Hojeokbusa* (戶籍簿寫) which is in the possession of the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Hawaii. He selects the “Extract of Family Registers, Sung Gyu-Hae, Tongjin, 1765” among eighty-eight family registers and examines the three hundreds and forty-five servants listed in it.

First of all, the data divided the servants owned by the Changnyeong Sung Family into three categories : live-in, live-out, and runaway. Among them, live-in accounted for about 25%, live-out about 65%, and runaway about 10%. Males accounted for about 52% and females about 48%. It is likely that the sex ratio was relatively balanced.

The live-out servants lived all over the country except Hamgyeong Province. They lived in a total of fifteen areas : three towns in Gyeonggi, Chungcheong, and Jeolla Provinces respectively, two in Gyeongsang and Hwanghae Provinces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Inha University

respectively, and one in Gangwon and Pyeongan Provinces respectively. Especially, about 43% of all live-out servants lived together in Gangneung. This shows that the members of Changnyeong Sung Family lived in Tongjin had a special connection to Gangneung.

The data shows that the average age of the all servants was about forty-five years old. It was forty-three for men and forty-seven for women. It was thirty-one for live-in servants (twenty-nine for men and thirty-three for women), fifty-one for live-out servants (forty-nine for men and fifty-four for women), and forty-eight for runaway servants (forty-two for men and sixty for women). Female servants were older than male servants.

Regarding the age distribution, the youngest (live-in) was three years old and the oldest (live-out and runaway) were ninety-two years old. 13.3% were in their teens, 11.3% in their 20s, 10.7% in their 50s, 10.1% in their 30s, 9.5% in their 40s, 8.6% in their 60s, 8.3% in their 70s, 5.3% in their 80s, 1.8% were under the age of 10, and 1.5% were in their 90s.

It was stated that the ages of the sixty-six servants were unknown. Sixty-three (96%) of them were all live-out servants except three live-in servants. It must have been difficult for their owners to determine the age of them living far away. On the contrary, ages of the runaway servants were all stated. It shows that their owners made clear that they belonged to the Changnyeong Sung Family lived in Tongjin.

Regarding marriages of the servants, 70% of them were same-class marriages and 30% of them were interclass marriages. About 23% were a marriage of two servants both belonged to Sung Gyu-Hae, about 46% were a marriage of Sung Gyu-Hae's servant and a servant owned by others, about 10% were a marriage of a male servant and a female commoner, and about 21% were a marriage of a female servant and male commoner.

Finally, about 86% of the servants were in familial relations. It shows that

servants owned by the noble families in the later period of Joseon were in familial relations. However, the familial relationship between live-in servants and live-out servants was not confirmed. This suggests that in the 18th century, Sung Gyu-Hae's family managed servants by separating them by ministry type.

Key words: the University of Hawaii,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Korea, junhogu (extract of family registers), Tongjin (通津), Changnyeong Sung family, owned servant